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70호 【루계 제24848호】 주체104(2015)년 3월 11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대로 우리 나라를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자! (공동구호에서)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에 선전선동화력을 총집중

평양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지금 수도의 그 어디에서나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평양시가 모든 면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장천지구가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주요전구가 되여 부글부글 끓고있다. 어제의 기록이 오늘에는 낡은것이 되고 시간마다 그 면모가 달라지는 오늘의 장천땅은 그야말로 비약과 혁신의 불도가니를 방불케 하고있다.

장천지구만이 아닌 시안의 모든 단위들이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거세찬 열풍속에 새날을 맞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일군들은 시대의 앞장에서 나가는 전형단위를 창조하는데서도, 전형단위들을 따라앞서기 위한 경쟁을 벌리는데서도 대중의 창조적열의와 적극성을 발동시키는데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해 정초부터 평양시안의 여러곳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최근 평양시에서 일을 많이 제끼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면서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새로운 평양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당의 사상을 틀어쥐고 대중의 사상의 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데 부서사업의 중심을 두고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년초부터 시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사상의 포문을 일제히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특히 시에서 력량을 집중하고있는 전투장들마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통이 크고 대담한 작전들을 펴나가고있다.

지금 시에서 총력량을 집중하여 치렬한 전투를 벌리고있는 장천지구는 힘있는 경제선동의 북소리로 하여 격전장을 방불케 하고있다.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은 현지에서 방송선전차와 기동예술선동대를 통한 화선식선동을 줄기차게 들이대는것과 함께 전투장마다에 혁명적인 구호와 직관선전판들을 내붙이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기동성있는 선전선동활동을 박력있게 벌리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장천지구뿐만아니라 시안의 중요단위들에 내려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부서의 조직사업에 따라 현재 공장, 기업소들의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시안의 혁명사적부문 강사들과 구역, 군출판물보급소 출판물보급원들이 전력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과 농장들에 나가 기동성있는 화선식이동강의와 해설선전활동을 집중적으로 벌려 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수도의 모든 거리들에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와 《조국해방 70돐》, 《당창건 70돐》, 《결사옹위》, 《결사관철》 등 힘있는 표어들을 게시하여 수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와 함께 시안의 여러곳들과 주요전투장, 공장, 기업소구내에서 방송선전차에 의한 집중적인 선전을 벌리고있으며 취주악대활동과 방송을 통한 다양한 선전선동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도높이 진행하는 한편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계획성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히 집단주의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근본비결이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있는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이 모든 단위들에 나가 대중의 정치적열의와 창조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선전선동사업을 패기있게 벌려 이르는 곳마다에서 대중적영웅주의가 높이 발휘되도록 하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승패는 전적으로 일군들에게 달려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시안의 일군들을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얼마전에 있은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시급기관들과 산하단위 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와 군자혁명사적지참관은 시안의 일군들에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어주고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전시생산을 보장한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맡은 일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오늘 시안의 모든 단위들에서는 시당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따라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에 맞추어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불사르고 맡겨진 과업을 인민군대식으로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단숨에 해제끼는 혁명적군인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의 모든 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시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선전선동사업의 도수를 더욱 높여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도록 하고있다.

특파기자 최수복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 평양시버섯공장을 찾는 사람들이 끊기지 않고있다.

평양시버섯공장은 버섯기질성형공정, 버섯무균공정, 버섯재배공정 등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는 생산공정의 통합생산체계는 물론 기업관리의 경영정보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된 우리 나라 버섯공장의 본보기, 표준이다. 공장안은 물론 공장밖의 주변환경도 깨끗한것으로 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그날 새해벽두에 인민들을 위해 마련된 희한한 창조물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1년 365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평양시에서 뜻깊은 2015년의 첫 성과를 마련하였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며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버섯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버섯은 맛좋고 영양가가 높으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서도 효과적인 영양식품, 건강식품, 기능성식품으로 널리 알려져왔다. 버섯은 특히 품종이 다양하고 재배원료가 풍부하며 기르기가 쉽기때문에 어디에서나 다 기를수 있으며 적은 면적에서도 높은 생산량을 보장할수 있다.

2년전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버섯공장을 돌아보시면서 버섯과 돼지고기를 섞어 만든 료리를 군인들에게 먹이고있는것을 보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해 7월에도 인민군대에서 건설한 버섯공장을 찾으시여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지금 나라의 곳곳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버섯생산기지들을 꾸려놓고 생산을 늘이기 위한 경쟁바람이 일고있다. 각도, 시, 군들뿐아니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 지어 가정들에서까지 버섯을 생산하고있는 오늘의 이채로운 풍경은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려는 우리 당의 결심이 현실로 펼쳐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버섯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평양시버섯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버섯생산기지들을 도처에 일떠세우고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버섯품종과 기질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버섯재배에서도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실리가 나면서도 빨리 기를수 있는 버섯재배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당정책관철에서의 성과는 일군들의 책임성과 실천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들의 식탁우에 버섯향기가 풍기게 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여야 한다.

1.4분기, 상반년계획완수자 련이어 배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우리 당의 령도업적이 그 어느 단위보다 뜨겁게 깃들어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1.4분기,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로력혁신자들이 많이 배출되고있다.

3월 8일현재 15명의 방직공들이 상반년계획을 완수하였으며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50여명의 1.4분기계획완수자가 배출된데 이어 3월에 들어와서도 그 대렬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새해전투가 시작되여 두달 남짓한 기간에 로력혁신자대렬이 많이 늘어나고있는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높은 천생산실적으로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공장로동계급의 충정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갖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심장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그들은 생산자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애국적소행을 속보와 방송을 비롯한 여러가지 선전수단을 통하여 즉시 소개선전하는 사업을 박력있게 내밀어 전투현장이 언제나 활기에 넘쳐 약동하도록 하고있다.

직포종합직장이 증산투쟁의 앞장에서 힘있게 내달리고있다.

공장적으로 배출된 15명의 상반년계획완수자중에 10명이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 로동자들이며 1.4분기계획완수자도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로력영웅인 문강순, 공훈방직공인 리명순동무를 비롯하여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속에 성장한 직포공들이 앞장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이들은 증산투쟁의 기수가 되여 내달리는 속에서도 짬시간을 리용하여 신입기대공들의 기능을 끌어올려주는 사업도 힘있게 벌려 직장안에 집단적혁신의 기상이 차넘치고있다.

화학섬유방적종합직장, 방적종합직장, 견방종합직장의 방직공들도 서로 앞서거니뒤서거니 치렬한 경쟁을 벌리면서 매일 맡겨진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며 전진하고있다.

견방종합직장 4직포직장 한명희동무가 상반년계획을 남먼저 끝내자 직장안의 많은 직포공들이 더욱 분발하여나섰다. 이들은 하루계획을 2배로 수행하는것도 성차지 않아 3배이상의 목표를 내걸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남다른 인연을 맺고 성장의 보폭을 더욱 크게 내짚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정책결사관철의 선봉투사가 될 불타는 열정을 안고 날이 갈수록 증산투쟁의 도수를 높여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전력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 순천화력발전소에서 —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통나무생산에서 계속 혁신

121호림업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통나무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로동계급이 통나무베기, 사이나르기, 마감나르기전투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힘찬 돌격전을 들이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은 산판에 올라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면서 설비와 부속품, 연유와 후방물자보장을 제때에 따라세우도록 하고있다.

부전림산사업소 통나무생산자들이 앞장에서 힘차게 달리고있다. 사업소에서는 공무동력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자동차, 뜨락또르수리와 부속품생산을 적극 다그쳐 모든 작업소들에서 마감나르기를 성과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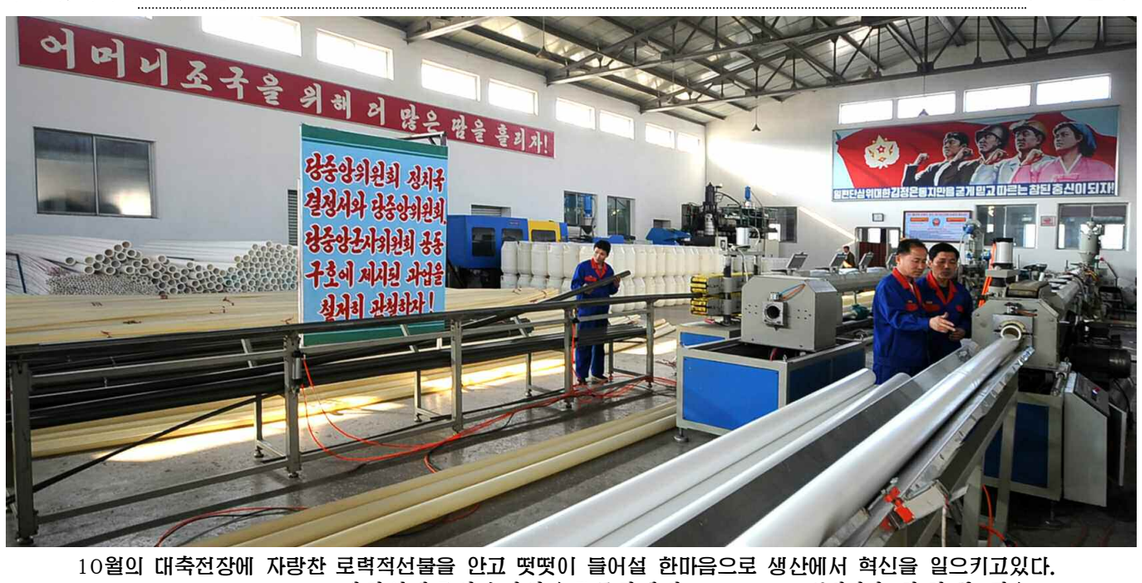
전투조직과 지휘를 화선식으로 박력있게 해나가면서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모두가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고 호소하는 일군들의 현장정치사업에 호응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자서림산사업소 통나무생산자들의 기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상창림산사업소 공무직장과 림철직장에서는 차륜맞춤프레스를 자체로 제작하여 10여대의 림철대차를 생산함으로써 마감나르기에서 큰 은을 내게 하고있다.

삼수림산사업소와 압록강류벌사업소에서도 륜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만부하를 걸어 통나무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뜻깊은 올해에 월, 분기, 년간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산판마다에서 총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떳떳이 들어설 한마음으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3호대형원추형파쇄장건설 완공, 설비시운전 진행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철정광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 무산의 로동계급이 3호대형원추형파쇄장건설을 끝내고 설비들에 대한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시운전결과 대형원추형파쇄기의 능력과 콩크리트구조물의 안전성, 설비들의 기술상태가 좋다는것이 확증되였다.

무산의 로동계급은 3호대형원추형파쇄장건설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이 장군님의 유훈을 어떻게 결사관철해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금속,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추켜세워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에서는 조광처리용 대형원추형파쇄장을 건설하여 철정광생산능력을 3배이상 끌어올릴 대담한 작전을 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실력있는 일군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100여명의 끌끌한 청년동맹원들로 돌격대를 무었다. 그리고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건설공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건설장에서 방송선전과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강화하고 전투속보발간을 통한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 온 건설장이 불도가니마냥 끓게 하였다.

련합기업소참모부서에서는 착공에 앞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들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건설공사가 일정계획대로 진척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수십차례의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빈틈없는 대책을 세웠다.

토량처리를 맡은 돌격대원들과 운전사들은 무슨 일이나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전격적으로 해제끼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건설시작부터 드센 공격전을 들이대여 7만여㎥에 달하는 방대한 토량을 9일동안에 처리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그리고 철산봉의 가파로운 령마루에 수백m의 공사도로를 건설하고 구조물콩크리트타입을 기한전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통나무운반을 맡아나선 련합기업소당일군들은 돌격대원들과 함께 막아서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강행돌파해나가며 두달은 걸려야 한다던 통나무운반을 15일동안에 해제끼였다.

대보수분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여러개의 콘베아설치와 설비제작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련합기업소기술집단은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대형원추형파쇄기운영을 콤퓨터로 감시 및 조종할수 있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놓았다.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파쇄장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당, 행정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돌격대원들과 함께 구조물콩크리트타입에 참가하여 매일 계획보다 3배이상의 작업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건설기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 후방부서와 업무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3일동안에 해야 할 작업과제를 10여시간에, 로천분광산과 운광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련속타입을 들이대여 맡겨진 작업과제를 짧은 시간에 끝냈다.

봉사관리소의 종업원들은 건설전기간 돌격대원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후방물자들을 보내주어 그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도검찰소일군들과 무산군의 여러 단위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대형원추형파쇄장건설을 성심성의를 다해 도와주었다.

특히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무산광업건설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파쇄장시공과 대형파쇄설비설치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육중한 대형파쇄설비설치와 기계실과 조종실꾸리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파쇄기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3호대형원추형파쇄장이 건설됨으로써 철정광생산능력을 종전보다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으며 조광을 나르던 종전의 낡은 생산공정을 완전히 없앨수 있게 되였다.

특파기자 리은남

정 론

당 정 책 신 봉 자

우리 당의 력사적결정이 강산을 진감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당정책을 이 시대의 불멸의 기치로 다시한번 높이 추켜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최후승리의 리정표를 향한 조선의 총진군의 목적과 진로를 밝혔고 우리만이 가진 그 무궁무진한 힘을 온 세상에 긍지높이 선언하였다. 이 땅의 매 사람들을 혁명의 위대한 교과서앞에 또다시 경건하게 세워주고 천만군민을 장엄한 총공격전에로 힘차게 떠밀어주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조선의 혁명가들의 정신은 무엇으로 고동쳐야 하는가. 백두산대국이 안아올릴 참된 애국자, 번영하는 이 조국의 진정한 영웅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1

당정책!

이 말과 함께 천만의 심장이 높뛰고 시대가 끓고있다.

당기발 휘날리는 혁명의 참모부로부터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가 창조되는 수도의 건설장과 일터들은 물론 멀리 북변의 외진 산골마을과 최전방섬초소에 이르기까지 당정책, 이 세 글자가 피방울처럼 맥동친다.

당정책이 구석구석마다에서 정확히 관철된 공장이요.

당정책관철의 기치를 제일먼저 들었소.

당정책교과서와도 같은 공연, 당정책으로 만장약된 공연이요. …

우리 원수님 가시는 곳마다, 찾으시는 일터마다 남기시는 뜻깊은 말씀들은 이 시대에 가장 높이 울리는 말, 심장을 치는 부름이 어떤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있다.

당정책결사관철의 기적으로 가슴벅찼던 지난해에 이어 력사적인 이해의 총공격전도 바로 당정책옹위전의 열풍으로 끓고있다. 새해벽두부터 온 나라를 뒤흔든 평양시버섯공장소식은 우리 원수님 당정책결사관철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가라는 당부를 남기신 정밀기계생산기지와 당정책옹위전의 선구자들이 나온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으로 이어졌고 류원신발공장과 원산구두공장, 평양화장품공장으로 끝없이 확대되였다.

어찌 년말, 년초만이겠는가. 우리의 3년이 그대로 당정책옹위전의 날과 달이였고 우리의 오늘이 또한 줄기차게 흐르는 결사관철의 세월이다.

이 땅 어디를 가보고 누구를 만나보아도 좋다. 시대를 상징하는 표준공장, 본보기공장들과 실적을 내고있는 단위들은 례외없이 당정책대로 투쟁하는 일터들이다.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행복의 열매가 주렁지는 고장들은 반드시 당정책이 훌륭한 결실을 보고있는 곳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크지 않은 하나의 수첩이 우리의 심금을 울려준다. 우리 원수님 늘 품고계시는 그 작은 수첩, 거기에 어떤 나라의 중대사들이 적혀있어 그이께서는 언제나 품에서 떼여놓을줄 모르시는가. 어떤 만복의 묘안이 있고 미래의 눈부신 설계도가 있어 그처럼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늘 그것을 가지고 다니시는가.

우리 원수님의 작은 수첩!

그 깊은 사연을 우리는 다 알수 없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말할수 있다. 바로 거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 우리 당정책의 진수를 이룬 그분들의 금옥같은 명제들이 페지마다 모셔져있다는것이다. 우리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신 당정책을 그이께서 얼마나 중시하시고 자자구구 연구하시는가를 이 하나의 수첩이 다 말해주고있다.

자신께서는 시간만 있으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를 깊이 연구한다고, 현지지도를 나가기 전에도 수령님들의 유훈을 연구하면 방도가 환히 떠오른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신 우리 원수님,

그이께서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자로 삼고 나아갈 길을 찾으시고 혁명을 이끌고계시는것이다. 장천땅에도 우리의 대원수님들께서 품들여 마련해주신 온실농사의 경험을 직접 알아보시러 나가시였고 수도의 화장품생산기지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연구하시다가 몸소 찾아가시였다.

어찌 하나의 수첩이라고만 할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원수님 느끼시는 그립고 그리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따뜻한 체취이고 다심한 손길이며 그 자애로운 음성인것이다. 그 수첩에서 인민을 찾아가시던 그분들의 모습도 다시 보시고 나라일을 두고 그분들과 함께 중요한 의논도 하시는것이다.

우리 당정책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애착과 사랑의 세계는 그것이 가리키고있는 백전백승의 진로에 대한 열렬한 확신으로부터 출발된것이다.

우리 당정책, 어떻게 마련된 만복의 교과서이며 어떤 만단사연을 품어안은 승리의 백과전서이던가.

언제나 인민을 하늘로 여기시며 때로는 흙냄새나는 포전머리에서, 때로는 수수한 멍석우에서, 때로는 물고기비린내나는 선창에서 평범한 농장원과 선반공, 어로공과 판매원 지어는 길가던 오리방목공이며 나어린 학생들의 이야기까지 들어가시며 우리 수령님 하나 또 하나 세우신 조선로동당 정책이다. 이 정책을 위해 그이께서는 얼마나 많은 길을 걸으시였고 얼마나 많은 자료와 수자들을 자신의 수첩에 적으셔야 했던가.

전후 7,000세대분의 자재와 자금으로 더 많은 살림집을 지으실 결심을 품으시고 평범한 건설로동자들과 무릎을 마주하신 우리 수령님 소박한 그들의 의견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자신의 수첩에 적기도 하시고 손수 계산도 해보시며 귀중한 오전시간을 다 보내시였다. 변변한 대답을 드리지 못해 옹색해하는 로동자들에게 오히려 오전중만 동무들과 담화할 계획이였는데 동무들과 담화하여보니 예비가 자꾸 나온다고, 로동자들과 담화하여보면 늘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시며 자신의 일정까지 변경하여 밤늦게까지 담화를 계속하신 우리 수령님,

이렇듯 온 하루를 다 바치시며 로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으시였으며 거기에서 끝내 같은 자재와 자금으로 수많은 살림집을 더 지을수 있는 막대한 예비를 찾아내시였다.

수령님께서 바치신 그날의 귀중한 하루, 그것은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이 세상 둘도 없는 우리 당정책을 하나하나 완성하신 그이의 숭고한 한생의 축도였다.

우리 당정책, 그 한페지한페지를 번지느라면 우리 장군님 넘고 오르신 철령과 오성산의 가파로운 산길이 어려오고 조국의 대지를 끝없이 누비던 그 야전렬차의 마지막기적소리가 금시처럼 들려온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한시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가고가신 우리 장군님의 강행군길, 당정책을 지켜 천만로고로 마련해주신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수령님 찾으시였던 그 12월에 강선을 찾으시여 또다시 강선에서 새로운 대고조의 봉화를 들어야 한다고 절절히 호소하시던 그 음성이 우리의 눈시울 뜨겁게 적신다. 우리 장군님 고난의 언덕에서 헤치고 또 헤치시던 강계의 눈보라길, 조국땅우에 만복의 씨앗을 뿌리시기 위해 걷고걸으신 공장과 농촌, 막장길들에서 하나하나 마련되고 더욱 빛을 뿌린 우리 당정책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로고와 헌신이 어리고어린 또 한폭의 붉은 기발이다.

우리에게는 당정책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앞길을 비쳐주는 등대가 있고 미래에로 제일먼저 가닿게 하는 무진장한 힘이 있다는것이다. 리상은 다같이 높아도 누구에게나 지름길이 있는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갈길을 찾지 못해 모대기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우리 인민에게는 그 어떤 불가능속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고 그 어떤 강대한 원쑤와도 싸워이길수 있는 만능불패의 보검—당정책이 있다.

동해포구에 펼쳐진 희한한 물고기대풍을 격정속에 보고 또 보시던 그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터놓으시던 그 말씀,

이 동무들이 바로 당정책신봉자들이요!

우리 나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패배주의자들의 우는소리를 만선의 배고동소리로 단호히 쳐갈긴 황금해의 개척자들이 그리도 대견하시여 이들이 바로 당정책신봉자들이라고, 이보다 더 높은 칭호는 없다고 하시던 원수님의 그날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울린다.

당정책신봉자, 명예도 공명도 아니고 그 어떤 높은 직위도 아니다.

그러나 어이하여 우리 당은 그 부름을 그렇듯 값높이 내세워주며 이 시대의 가장 높은 칭호로 정을 담아 불러주는것인가.

그것은 이들이 위대한 계승의 시기에 불타는 충정으로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백옥같은 일편단심의 인간들이기때문이다. 혁명의 대가 바뀌여도 당정책만 굳건히 고수되고 빛나게 실현된다면 그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생이고 그 성스러운 력사의 빛나는 계승인것이다.

오늘날 과연 누가 우리 원수님의 제일전우이며 누가 그이의 곁에 가장 가까이 설수 있는가. 그것은 20여년동안 인적없는 산중에 피와 땀을 묻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한 녕원의 군인건설자들처럼, 뜻깊은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쏴올릴데 대한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한 과학자, 기술자들처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결사관철하는 충정과 의리의 인간들이다.

당정책에 우리의 모든 승리와 번영이 달려있다. 우리가 년대와 년대를 이어 승리의 전통을 잇고 시련속에서도 문명강국에로 비약하는것은 위대한 당정책이 있기때문이다. 오늘의 신봉자들은 이 승리의 열쇠를 목숨으로 지켜 당의 구상을 실현하고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고있다.

그들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말이 없다. 이 세상 제일 강의한 인간들, 못해내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당정책신봉자들이다. 그들은 지금 이 시각도 조선의 자존심을 걸고 식료품과 타일, 윤활유를 비롯한 우리의 제품으로 세계를 딛고 오르고있으며 조국이 아파하는 문제, 절실히 바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탐구의 밤을 새고 개척의 새날을 맞고있다.

조국이 전진하는 곳에는 반드시 당정책신봉자가 있으며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소극과 패배주의가 숨쉴 자리가 없다. 오늘날 진짜혁명가와 가짜혁명가, 애국자와 패배주의자, 멸사복무의 주인공과 월급쟁이도 당정책, 이 세 글자앞에서 여지없이 검증된다. 당정책은 신념을 비치는 거울이며 진리의 기준이다.

인민이 당정책관철의 선구자들을 제일로 존경하며 시대가 그들에게 가장 값높은 명예를 안겨주는 리유가 거기에 있다. 당정책신봉자, 조국과 인민앞에 그리고 혁명앞에 언제나 떳떳이 나설수 있는 이런 최고의 영예, 천금같은 칭호는 없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것으로써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안아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원수님의 드팀없는 신조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2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온 나라가 총궐기, 총돌격의 불길을 일으키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그 어떤 조건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겠다는 혁명적신념과 투지, 혁명적배짱을 지니고 분발하여 떨쳐나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호소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린다.

중대한 력사적사명이 우리 세대에게 지워져있다.

로동당을 따라 걸어온 70년의 력사가 얼마나 긍지높고 영광스러우며 이 길에서 맞이하는 미래가 얼마나 찬란한것인가를 우리 세대의 자욱으로 력사의 년륜에 새겨야 한다. 눈부신 문명의 창조물들을 이 땅이 좁도록 들여앉히고 풍성한 행복의 열매들을 어디서나 주렁지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 얼마나 고귀한 재보이며 그분들께서 념원하신 사회주의락원이 어떤 리상사회인가를 세계앞에 당당히 보여주어야 한다.

당정책, 조선은 이 만능의 보검을 투쟁의 기치로 높이 들었다. 70년, 700년, 7,000년을 이끌어갈 영원한 혁명의 붉은기로 추켜들었다.

당중앙이 정한 승리의 리정표를 따라 용감하게 노도쳐 나아가는 우리의 진군대오에는 당정책신봉, 당정책관철의 세찬 맥동만이 차넘쳐야 한다.

천만이 당정책신봉자가 되자!

전당, 전군, 전민이 당정책으로 무장하자!

누구나 당정책을 학습하고 어디서나 당정책학습열풍으로 들끓어야 한다.

대를 이어 하는것이 혁명이다. 위대한 우리 당의 력사에 70번째 년륜이 새겨지는 오늘 혁명의 대가 바뀌고 새로운 세대가 주력으로 등장하였다. 활력있고 참신한 이 대오가 전세대의 길을 더욱 힘차게 이어가려면 혁명의 넋이 어린 계주봉을 똑똑히 넘겨받아야 한다. 우리의 줄기찬 투쟁은 당정책학습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정책은 그대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이고 우리 당이 헤쳐온 전 로정인 동시에 일편단심 당을 따라 한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의 빛나는 자욱이다. 그것은 조선의 넋이고 불길이며 천만군민의 억센 숨결이다.

당정책신봉자란 우리 당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에 새긴 사람이고 그것을 운명의 유일한 보검으로 틀어쥔 사람이다. 누구나 당정책의 금옥같은 명제들을 자자구구 자신의 넋으로 간직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전면적으로 연구하고 당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사색의 시간들로 날과 달을 가득 채워야 한다. 고난과 시련이 앞을 막아설 때, 새로운 창조의 설계도를 펼칠 때, 더 높은 비약의 목표가 나설 때 당정책의 글줄들이 제일먼저 떠오르고 거기서 열쇠를 찾아야 한다.

당정책을 알면 길이 보이고 묘책이 생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정책이 구석구석마다에서 정확히 관철되고있는 공장이라고 치하하신 천지윤활유공장의 천지개벽은 어떻게 일어난것인가. 이곳 일군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공장의 생산장성과 현대화를 위한 방도를 모색하던 나날 당정책학습과정에 통합생산체계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여 비로소 무릎을 쳤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에 구현했더니 오늘과 같은 높은 수준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그 진정의 토로는 얼마나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가.

오늘 여기 와서 또 하나의 비결을 찾았소!

평양시가 당정책관철의 기치를 들었다고 하시며 우리 원수님 그리도 만족해하신 평양시버섯공장, 불이 번쩍 나게 해제낀 건설속도도 좋고 생산문화가 잘된 공장의 내외부도 마음에 드시였다. 그러나 그이의 마음을 더없이 기쁘게 한것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버섯공장의 본보기를 제힘으로 창조한것이였다. 생산공정의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힘, 우리 기술로 제작한 설비들로 자동화, 흐름선화를 실현한 이곳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투쟁에서 당정책관철의 또 하나의 열쇠를 틀어쥐시였다.

과학기술은 당정책관철의 힘있는 무기이다.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웅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온 세계에 앞서나갈 열망으로 들끓는 우리 시대를 둘러보라. 한가지를 내놓아도 최첨단의것을, 건축물을 하나 일떠세워도 세계으뜸의것을, 하나를 만들어도 남의 열백을 누르는 훌륭한 우리의것을 창조하는 투쟁이 오늘의 당정책관철전이다.

혁명가는 심장도 커야 하지만 지혜로와야 한다. 제국주의의 제재와 봉쇄가 극도에 달한 지금과 같은 때에 보통의 힘으로는 길을 열어나갈수 없다. 제힘으로 돌파구를 여는 비결도 과학기술에 있고 예비와 가능성을 백배로 증대시키는 힘도, 봉쇄의 울타리를 단숨에 뛰여넘는 도약의 비결도 과학기술에 있다.

전세대들이 빈터우에서 피타는 로력적위훈과 기술혁신으로 당정책옹위의 력사를 창조한 전통을 이어 우리 세대는 대담하고 통이 큰 과학기술전, 최첨단돌파전으로 당중앙을 옹위하고 문명강국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어디서나 과학기술중시의 된바람을 일으키고 어느 단위에서나 과학기술의 열쇠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자기의것, 나라에 소문을 낼수 있는 풍만한 성과를 계속 창조해야 한다.

어려울 때마다 인민군대를 찾게 되고 군대에 임무를 주게 된다고, 이런 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 우리 조국의 더없는 자랑이라고 값높은 평가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당의 뜻이라면 그 어디든 주저없이 달려가 그 어떤 임무도 결사관철하는 강력한 전투부대, 무엇을 하나 하여도 전국의 본보기가 될수 있는 최상의것을 만들어놓고 열백가지 일을 제껴도 당정책을 완벽하게 구현해놓는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억척의 지지점,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들이다.

나라가 고난을 겪던 시기에 안변의 물길굴건설장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한 우리 병사들이 오늘은 문명강국건설의 최전방에서 다시한번 이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시대를 격동시키고있다.

당의 명령, 지시앞에서 흥정을 모르는 인민군대처럼,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는 인민군대처럼,

당의 방침을 0.001㎜의 편차도 없이 관철하는 인민군대처럼.

혁명적군인정신이 가르치는 당정책결사관철의 본때는 바로 이렇다.

결사! 이것은 한몸이 천조각, 만조각이 난대도 당의 뜻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되고 불길이 되는 정신이다.

인민군대의 투쟁이 있고 위훈이 있는 그 어디서나 결사의 웨침이 높이 울린다.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당중앙의 의도와 구상을 꽃피운 황금해력사의 창조자들, 인민이 잊지 못하는 마식령의 군인건설자들,

이들이 헤쳐간 걸음걸음은 그대로 전화의 용사들이 불뿜는 적의 화점을 맞받아나간 그 걸음이고 이들의 창조물 하나하나는 전후의 강선로동계급이 생산한 12만의 강재와 같다.

당정책관철전에서는 전선과 후방이 따로 있을수 없고 빈구석 또한 있을수 없다.

부서져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불에 타도 곧음을 버리지 않는 참대처럼 당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는 길에 한몸이 육탄이 되는 정신으로 누구나, 어디서나 당정책관철의 함성을 우렁차게 울리자.

결사는 곧 끝까지이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가는 신념이 더없이 귀중하다.

한날한시에 당정책을 접수하고 다같이 출발을 했는데 무엇으로 하여 그 관철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가. 왜 어떤 곳에는 물고기가 차고넘치는데 어떤 곳에서는 물고기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는가.

환성을 지르며 요란한 시작을 했다가도 얼마 못 가서 식어지는 태도, 당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 저것을 줴버리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이것을 줴버리는 식은 당정책관철과 인연이 없다. 중도반단은 당정책의 정당성에 그늘을 지우고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에 금을 내는 위험한 독초이다.

일군들이여, 조국의 운명이 당정책을 어떻게 관철하는가에 달려있다면 당정책의 운명은 그대들, 일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 한몸이 천조각, 만조각이 난대도 당의 뜻을 받드는 피방울이 되고 밑거름이 되여야 할 선구자들이 다름아닌 우리 일군들이다.

부두가 아니라 갑판에 올라 전투를 지휘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지휘관들처럼 《단풍》호를 어장으로 몰아가는 기세로 진두에서 돌격전을 이끌어야 한다. 전투작전도 화선에서 하고 정치사업도 화선에서 하며 지휘도 총화도 화선에서 진행하는 진짜배기화선지휘관이 되여야 한다.

당정책이라는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는 그날까지 뿌리가 되여 피땀을 바치는 일군, 인민들이 그 덕을 보는 기쁨에서 자기의 본분을 찾고 보람을 느끼는 량심의 인간, 당정책관철의 결과로써 인민의 인정을 받는 일군들에게 시대는 당정책신봉자라는 고귀한 칭호를 준다.

온 나라가 소리치며 일떠서 어디서나 황금해와 같은 기적을 창조하자. 받아안은 행복앞에서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당정책관철의 결실을 안고 로동당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는 행복의 창조자가 되자.

더 빨리 달리고 더 높이 솟구칠 결정적인 돌파전이 눈앞에 있다.

당정책이 낳은 훌륭한 창조물을 대하실 때마다 1년 365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시는 우리 원수님, 당정책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단위들을 찾을 때면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업어주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거듭 뇌이시는 그이이시다.

인민을 위해 한자한자 금옥같은 정책을 세우고 그 실현을 앞장에서 이끌며 그처럼 열과 정을 쏟아붓고도 제손으로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을 하늘높이 떠받드는 이런 고마운 품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는가.

당정책관철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고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오자. 우리모두 당정책을 꽃피운 행복의 열매들로 이 강산을 가득 채워 위대한 어머니당의 70돐에 삼가 선물로 드리자. 우리가 이 땅우에 일떠세우는 눈부신 락원의 실체로, 우리의 행복과 미래를 무궁토록 담보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찬란한 현실로 세상에 없는 당정책만세의 위대한 기념비를 쌓아올리자.

백 룡, 한 충 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평양 3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따맘 쑬레이만 주조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관계부문 일군들과 수리아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결사관철해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평양고무공장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미술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신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미술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신 50돐 기념보고회가 10일 국립연극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박춘남문화상, 안동춘 문예총 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박물관일군들, 종업원들, 미술부문 창작가, 교원, 학생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리광영 조선미술박물관 관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54(1965)년 3월 11일 조선미술박물관을 찾으시여 주체미술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박물관의 여러 진렬실들을 돌아보시면서 민족미술유산에 대한 학술연구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방도, 민족문화유산보존에서 나서는 근본문제, 조선화의 유구한 전통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미술작품을 통한 대중교양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또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의 작품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들을 창작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미술작품의 주제설정과 진렬전시에서 구현하여야 할 원칙적요구, 박물관운영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날의 교시는 주체미술발전과 박물관사업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강령적지침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주체문학예술의 전성기를 안아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여 미술을 발전시키며 민족미술유산보존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도록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버이장군님을 그리는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헤아리시여 광명성절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비롯한 뜻깊은 계기들에 박물관에서 미술전시회들을 의의있게 진행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와 헌신의 로고속에 조선미술박물관이 지난 50년간 민족미술유산의 보물고, 주체미술보급선전의 중요기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온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미술부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제1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미술박물관을 세계굴지의 박물관으로 훌륭히 꾸리며 절세위인들의 영상미술작품들을 비롯한 국보적인 명작들과 민족미술유산들에 대한 보존관리사업에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박물관진렬실들의 전시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며 우리 민족의 찬란한 미술문화전통과 주체미술의 자랑찬 면모를 보여주는 다매체편집물들, 화첩들을 다양하고 품위있게 제작하여 내외에 널리 보급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힘있게 떨쳐나 박물관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황주군 장천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발휘하신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우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또한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도서들을 가지고 독보, 해설담화, 연구발표모임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당세포비서들과 선동원들이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해설선전하고있다.

얼마전 농사차비전투로 들끓고있는 어느 한 작업반에 내려간 리당일군은 항일의 나날에나 새 조국건설의 나날에나 변함없는 친위전사의 자세로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신 백두산녀장군의 빛나는 혁명생애에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더 잘 받들어갈 불타는 마음안고 당면한 영농작업에서 혁신을 일으킬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홍철남

《산림조성사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김 정 은

중심고리로 찾아쥔 사름률보장문제

벽성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무를 많이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심어 사름률을 높이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벽성군 일군들은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3년안에 산림을 복구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 수행에서 잘한것은 사름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나무심기방법을 찾아쥐고 실천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받아안은 군책임일군들은 로작을 깊이 연구하고 군의 산림실태를 료해하던중 한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였다. 그것은 해마다 군에서 많은 로력이 동원되여 나무심기를 하였지만 아직도 1 000여정보의 산림조성면적이 남아있었기때문이였다.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은 군산림경영소일군들과 산림감독원들을 만나보았다. 지난 10여년동안에 해마다 수백만그루의 나무모를 키워 산에 심은것은 사실이였다. 그렇다면 산림을 조성해야 할 면적이 해마다 크게 줄어들어야 하겠으나 그렇지 못하였다. 파헤쳐보니 입산규정을 지키지 못했거나 승인없이 나무를 찍는 편향, 심은 나무가 뿌리를 못 내리고 죽는 현상 등 원인은 여러가지였다.

그때 군책임일군들은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아 힘을 집중하여야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한 당의 뜻을 새기며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입산규정과 채벌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군중교양사업을 벌리는것과 함께 산림감독원, 산림순시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사업은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면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었다. 하지만 심은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올해의 산림복구성과를 기대할수 없었다. 이것은 사름률을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 산림조성성과가 크게 좌우된다는것을 말해주었다.

중심고리는 사름률보장에 있다. 문제를 이렇게 본 군책임일군들은 그 방도를 놓고 사색과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월봉리와 석동리의 경험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몇년전 월봉리에서는 창성이깔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었다. 하지만 심은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거의다 죽어버렸다. 석동리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야산들에 땔나무림을 조성하면서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심었지만 얼마 자라지 못하고 죽기 시작하였다.

그 원인을 따져보는 과정에 지대적특성에 맞게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나무심기를 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곳 사람들은 집체적토의를 거쳐 세잎소나무를 심어보았다. 그랬더니 해가 갈수록 숲이 우거져갔다.

이 사실을 놓고 군일군들이 찾게 되는 교훈은 참으로 컸다.

나무도 수종에 따라 적지가 있다. 적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만 그렇지 못한 나무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이것은 산림의 현 실태와 지대적특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수종별적지를 찾아 나무심기를 진행해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적지적수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사름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근본열쇠였다.

찾은 교훈이 클수록 분발심도 커지는 법이다. 군일군들은 산림부문 일군들과 함께 즉시 나무를 심어야 할 산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군의 산림은 80.2%가 해발높이 200m 아래에 있었으며 특히 산림을 복구해야 할 1 000여정보가운데서 석비레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런 땅에 기본수종으로는 세잎소나무를 선정하였다. 그것은 이 나무가 메마른 땅이나 습한 곳에서도 잘 자라면서 토양에 대한 요구성이 높지 않기때문이였다. 이와 함께 산들의 토양조건에 맞게 경제적가치가 있는 잣나무와 창성이깔나무를 심도록 하였다.

드디여 올해의 산림복구계획이 산들의 특성에 맞게 세워졌다. 이것은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결국 나무심기는 시작부터 확고한 승산밑에 진행되게 되였다.

사름률을 높이기 위해 나무모를 운반할 때 비닐주머니를 리용하도록 한것을 보기로 하자.

군책임일군은 나무심기를 질적으로 하기 위한 방도를 연구하던중 한가지 사실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그것은 나무심기를 하면서 나무모뿌리가 마르는 현상이 나타났기때문이였다.

그 극복방도를 찾기 위해 산림부문 일군들과 함께 사색을 이어가던 그는 이런 착상을 하게 되였다. 그것은 나무모뿌리를 닥풀우림액이나 진흙물에 잠그었다가 비닐주머니로 싸는 방법이였다. 사실 지난 시기에는 나무모뿌리를 닥풀우림액이나 진흙물에 잠그었다가 산에 운반하여 심군 하였다. 그러나 운반하고 심는 과정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나무모뿌리의 일부가 말라버리군 하였다. 하지만 뿌리를 비닐주머니로 감싸면 이런 현상을 방지할수 있었던것이였다.

올해 봄철을 앞두고 비닐주머니를 리용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벌어졌다.

봄철이 되자 군일군들은 모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한그루의 나무도 정성다해 질적으로 심도록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려나갔다. 또한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별로 조림구역을 분할하여 자기가 심은 나무는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당의 뜻대로 중심고리를 찾아 실천해나가고있는 이들의 일본새에 의하여 뜻깊은 올해에 산림복구전투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고있다.

전 명 일

가을철로 바뀐 잣씨붙임시기

송원군산림경영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무모를 키우는것은 산림조성사업의 첫 공정이며 산림복구전투의 성과는 양묘장들에서 나무모생산을 어떻게 따라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송원군산림경영소에서 올해 봄철나무심기성과를 담보해줄 나무모생산에서 남다른 성과를 이룩한것이 있다. 잣씨붙임을 봄철이 아니라 가을철에 하여 실한 잣나무모들을 많이 키운것이다.

나무종자의 씨붙임은 대체로 봄철에 한다. 잣나무종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군산림경영소에서는 몇해전부터 잣씨붙임을 11월초에 하였다.

종전에는 잣종자를 저온처리하여 봄에 씨붙임을 하군 하였다. 그런데 봄철의 가물피해를 받아 싹트기률이 높지 못한것은 물론 일부 잣나무모들은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이런 방법으로 키워낸 잣나무모는 옮겨심어도 사름률이 높지 못하였다. 짧은 기간에 수천정보의 잣나무림을 조성하자면 결정적으로 이런 현상을 없애야 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던 지배인은 잣씨붙임을 가을철에 해도 겨울철추위의 피해를 받지 않을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종업원들이 이 발기를 지지해나섰다.

그들은 그해 11월초에 시험포전을 정하고 잣씨붙임을 하였다. 이때 먼저 포전에 질좋은 거름을 두툼히 깔았다. 그다음 두둑을 지은 다음 잣씨붙임을 하고 부식토를 덮었다. 종자가 싹트기 시작할 시기에 얼굼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비료주기는 한해에 세번 하였는데 처음에는 씨붙임을 한 후 다음해 초봄 눈이 녹기 시작하는 시기에 하였다. 이렇게 하니 눈석임물에 의해 비료성분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싹트기률이 높아진것은 물론 나무모의 생육에도 좋았다. 그리고 5월과 8월에도 하였는데 봄에 씨붙임을 하고 비료를 주었을 때보다 훨씬 빨리 자랐다.

김매기는 잣씨붙임을 한 다음해에 8회, 그 이듬해에는 7회 하였다.

잣씨붙임을 이런 방법으로 하고 비배관리하니 지난 시기보다 10~20㎝ 더 크게 자랐다. 결국 잣나무모를 옮겨심어도 사름률이 높았다.

현실은 잣나무모생산조직을 보다 혁신적으로 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대담하게 이 방법을 실천에 도입하였다. 싹트기률이 높아진데 맞게 비배관리를 잘 짜고들었다.

실하게 키운 나무모를 심은 결과 사름률이 거의 100% 보장되였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수천정보의 잣나무림이 조성되였다.

그들은 올해에도 근 500정보의 산에 심을수 있는 잣나무모를 마련하였다.

이들의 경험은 잣나무종자싹트기률과 사름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적극 받아들일 때 당의 뜻대로 산림복구전투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 창 길

그루마다 달아놓은 명찰

‖ 철산군 명암협동농장 제6작업반에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주의는 조국땅의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키우는데 자기의 땀과 지성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이며 애국의 마음은 나무 한그루라도 제손으로 심고 정성껏 가꿀 때 자라나게 됩니다.》

며칠전이였다. 철산군 명암협동농장 2중3대혁명붉은기 제6작업반의 농장원들은 주변에 나무심을 준비를 갖추고있었다. 나무구뎅이자리들을 정하고 거름과 작업도구들도 준비해놓은 그들은 올해의 나무심기는 문제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때 작업반장 정상덕동무가 손바닥만 한 표쪽같은것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자기가 심은 나무들에 이런 명찰을 만들어 달아놓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까지 그 명찰을 보며 자기 부모들의 애국심을 평가하게 하자는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모두가 호기심에 들어다보니 거기에는 관리자라는 단어옆에 자기들의 이름이 적혀있는것이였다.

작업반원들은 서로 마주보고서는 또다시 명찰에 눈길을 박았다. 생각이 깊어졌다.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는것은 나무를 심는것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는 나무를 심은 다음에는 분조마다 한사람에게 책임지게 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결과 사름률을 높일수 없었다.

사실 작업반장이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깊이 새겨보면서 큰 가책을 받았다. 특히 심은 나무는 나무를 심은 기관, 기업소와 단위들에서 책임지고 살려내도록 담당제를 엄격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그로 하여금 지난 시기 자기의 그릇된 일본새를 돌이켜보게 하였다. 심은 나무를 분조마다 한사람이 맡아 관리를 하게 하였으니 그 많은 나무들을 잘 키울리 만무하였다.

나무심기실적을 몇그루의 나무를 심었는가를 놓고 따질것이 아니라 사름률을 놓고 평가하자. 그러자면 명찰을 만들어 달아놓게 해야 한다.

작업반장은 이렇게 결심하고 명찰에 나무를 심은 농장원의 이름과 날자까지 써넣어 모두가 책임지도록 하였으며 후날에 그들이 자기들이 심은 나무들에 량심을 비추어보며 더욱 분발하도록 하였다.

나무심기가 시작되자 작업반원들은 누가 시키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자기가 심은 나무에서 자기의 애국심을 검증받을 자각을 안고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마다에 진정을 바치였다. 구뎅이에 부식토를 듬뿍 넣고 나무를 심은 다음 물주기와 밟아주기를 한 후 제손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명찰을 매달았다.

그리고는 마음속결의를 다지였다. 내가 심은 나무들이 거목이 될 때까지 내손으로, 내 땀으로 자래우리라고.

김 강 철

산림감독원의 새벽길

안주시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 박태산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이고 온 나라를 숲이 우거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한대의 나무라도 더 심고 아끼고 가꾸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른새벽 안주시 장천리주변의 높고낮은 산발을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었다. 나무를 심을 곳마다 부식토를 운반해가는 그는 산림감독원 박태산동무였다.

사연이 있었다.

산림복구전투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이 발표된 후 그는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나라의 산림실태를 놓고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아프시였으면 지금 나라의 산림은 영원히 황폐화되는가 아니면 다시 추서는가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말씀하시였겠는가.

끝내 그는 잠자리를 박차고 집문밖을 나서고야말았다.

어둠이 가셔지지 않은 어뜩새벽, 그의 발걸음은 양묘장으로 향하였다.

(산림복구전투의 첫해인 올해 나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으로 양묘장에 들어서던 그는 무드기 쌓여있는 부식토를 띄여보았다.

문득 지난해 나무심기철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여러 기관, 기업소, 단위들에서 나무심기에 동원되여 많은 나무를 산에 심었지만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은 높지 못하였다. 원인은 부식토의 질과 량을 원만히 보장하지 못한데 있었다. 시내에는 부식토원천이 부족하였던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뜻깊은 올해에 나무를 질적으로 심을수 없었다. 이로부터 그는 양묘장에서 생산한 부식토를 나무심을 곳까지 운반할 결심을 내리게 되였다.

날씨는 차고 맵짰다.

하지만 푸른 숲 우거질 래일을 남먼저 안아올 뜨거운 마음으로 새벽길을 걷고 또 걷는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나무심을 곳마다에 질좋은 부식토무지가 생겨나게 되였다.

누구나 내 조국의 푸르름을 더해주고 숲이 무성하게 하는데 보탬주는 이런 새벽길을 많이 걸을 때 황금산, 보물산의 래일이 앞당겨지게 되지 않겠는가.

본사기자 주 창 일

애국의 뜨거운 마음안고 만경대혁명사적지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정성껏 심고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본사기자 찍음

자력갱생해야 푸른 숲이 무성해진다

룡강군산림경영소에서

룡강군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군안의 모든 산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당정책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무조건 결사관철하려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기풍이 낳은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당의 뜻대로 군안의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일판을 벌려놓았을 때 산림경영소에는 애로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렇다고 우에서 도와줄것만을 바라면서 앉아있어서는 언제가도 제힘으로 걸어나갈수 없었다.

자체의 힘으로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가자. 이렇게 결심한 지배인 인근식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양묘장에 물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양묘장에는 한정보의 야외재배장이 있는데 지난해에 물부족으로 나무모생산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조건에 맞게 2개의 굴포를 새로 파고 2개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올해의 나무모생산에 필요한 물량의 30%밖에 보장할수 없었다.

이런 현실은 더 많은 물원천을 찾을것을 요구하고있었다. 물원천이 더는 없겠는가?

그 방도를 찾기 위하여 산림경영소의 당일군은 일군들과 함께 발이 닳도록 여러곳을 돌아보고 로인들도 만나보았다. 그 과정에 회전분무식원형삽목장주변에 우물을 파고 이미 있던 저류지를 확장하여 두배로 늘이는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도들이 나왔다. 협의회가 열리고 이 안들은 모두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난문제가 제기되였다. 추운 겨울인것만큼 땅이 얼어붙어 작업조건이 매우 불리한것이였다.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이때 지배인은 절절하게 말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할 때 산림복구전투도 문제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장에 서서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킵시다.》

그의 절절한 호소는 일군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즉시 회전분무식원형삽목장주변에 우물을 파기 위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힘찬 전투를 벌렸다.

불꽃튀는 전투끝에 이들은 보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 공사를 끝내였다. 저류지확장공사장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군안의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드는데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화선식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공사장에서는 일군들부터가 정대와 함마를 쥐고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었다. 일군들의 뒤를 따라 종업원들도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쳤다. 이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공사는 마지막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곳 일군들의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은 부직포를 자르는 절단기를 만드는데서도 발휘되였다. 지난 시기에는 부직포절단작업을 사람이 칼로 하다보니 제대로 되지 않았고 능률도 높지 못하였다.

일군들은 제힘으로 해결할 결심으로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이미 있던 설비에 바늘대신 칼날을 달고 전동기를 설치하여 절단기를 만들어내였다. 그후 이들은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도 이 절단기를 리용하여 부직포를 절단할수 있게 하였다. 결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많은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당정책을 무조건 결사관철할 각오를 가지고 투쟁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일군들의 사상관점에 성패여부가 달려있다

국토환경보호부문일군회의에서 총화된 산림복구전투성과와 교훈을 놓고

지난 2월초 평양에서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군회의가 진행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중앙양묘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산림복구전투를 벌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다음 그 과업관철로 온 나라가 들끓고있는 시기에 열린것으로 하여 일군들을 다시한번 각성시켜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림복구전투에서 지난해에 거둔 많은 성과와 경험이 언급된 반면에 찾게 된 결함과 교훈도 적지 않았다. 회의에서 진행된 토론들을 분석해보면 우리 일군들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문제들이 있다. 그것은 산림복구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것이 조건문제인가, 사상관점문제인가 하는것을 똑바로 인식하여야 이 사업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이다.

당정책을 대하는 관점과 자세는 그것을 어떻게 접수하고 달라붙는가 하는데서부터 명백하게 갈라진다. 전후복구건설을 할 때처럼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정책을 즉시 사상적으로 접수한 단위들에서는 그 관철사업 역시 즉시적으로 조직진행하였다.

지난해 산림조성사업에서 우수한 단위로 평가된 송원군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 단위 일군들은 당정책을 즉시 접수하고 떨쳐나서는것이 모든 사업의 성패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라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나무모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한 사실이 그렇다. 이 군의 산림조성조건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땅이 척박하고 산비탈이 심하여 거름과 같은 물동을 나르자면 여러가지로 불리하였다. 하지만 이곳 일군들은 당에서 전당, 전군, 전민을 산림복구전투에로 부르자 즉시 군안의 산림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나무모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이렇게 당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집행하려는 정신을 지닌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성과가 이룩되기마련이다. 군에서는 양묘장을 잘 꾸리고 여기에 부식토와 나무모영양단지생산기지, 종합축산기지를 비롯한 나무모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그쯘히 갖추어놓음으로써 나무모생산을 마음먹은대로 내밀수 있었다.

백암군일군들은 당정책이 제시되자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즉시 집행대책을 세웠다. 그리하여 양묘장의 토지를 개량하고 물길공사를 하여 그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지난해에 수백만그루의 실한 나무모를 생산하여 푸른 숲이 늘어나게 하였다.

송원군, 백암군 일군들처럼 당정책을 즉시 접수하고 관철해나갈 때 당의 권위를 철저히 옹호할수 있다. 그들의 일본새는 현시기 우리 일군들이 산림복구전투를 어떤 사상관점을 가지고 벌려나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지난해 당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지 못한 일부 시, 군 일군들은 자기 고장의 산들이 벌거벗은 상태였지만 패배주의에 빠져 조건타발만 하면서 산림복구사업을 강건너 불보듯 대하였다.

삭주군의 실태만 보아도 그렇다. 이곳 군일군들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즉시 집행해나가려는 투철한 사상적각오가 부족한데로부터 산림복구전투를 소극적으로 하였다. 결국 군에서는 지난해 나무모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뿐아니라 심은 나무들에 대한 관리도 잘하지 못하였다. 이곳 일군들은 일정한 애로가 있다고 하여 당정책이 제시된 즉시 접수하고 집행대책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았다. 결국 난관앞에 겁을 먹고 주저앉아 속수무책으로 날과 달을 보내였다. 부닥친 난관앞에서 물러서며 자포자기하는 패배주의가 바로 오늘과 같은 락후한 산림실태를 낳았다고 볼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군들을 두고 당에서 믿고 내세워준 혁명의 지휘성원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김화군의 실태도 마찬가지이다. 이곳 일군들은 당정책을 말로만 접수하고 심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기에 아까운 자재를 들여 회전분무식원형삽목장을 건설해놓고도 제대로 리용하지 않았으며 양묘장관리도 잘못하여 나무모생산을 제대로 할수 없었다. 이렇게 된데는 산림경영소 일군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는 군일군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들은 양묘장관리는 산림경영소가 맡아할 일이기때문에 관심을 돌리지 않아도 자신들이 책임질것은 크게 없다고 여기면서 이곳 종업원들을 이러저러한 다른 사업에 동원시켰다. 자기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문 로력까지 동원시키면서 발벗고나서지만 산림조성에는 낯을 돌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당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한 일군들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당에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일군들이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런 사상관점으로 당정책을 대하여서는 언제 가도 벌거숭이산들을 수림화할수 없다. 일군들은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보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현시기 우리 당은 가까운 년간에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기 위한 오늘의 애국적진군에서 일군들이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정책결사관철은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완벽하게 되여야 한다. 당정책을 최상의 수준에서 결사관철하려는 일군들이 있는 단위에서는 그 어떤 조건이나 난관이 문제로 되지 않으며 사람들을 놀래우는 혁신이 일어난다.

회의에서 평가된 덕천시, 김책시가 바로 그렇다고 할수 있다. 이곳 일군들은 당정책은 무조건 결사관철하여야 한다는 립장에서 일단 과업이 제기되면 짧은 기간에 손색이 없게 질적으로 수행하였다.

지난 시기 덕천시에서는 큰물로 양묘장이 피해를 입었었다. 그때 책임일군들은 양묘장을 원상복구하는데 머무른것이 아니라 최상의 수준에서 본때있게 개건할 목표를 세우고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양묘장을 원래보다 더 멋있고 훌륭하게 건설하였으며 자체로 이동식분무기도 잘 만들고 앞선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지난해에 나무모생산계획을 100% 수행하였다.

김책시 책임일군들도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결과 지난 시기 한심하였던 양묘장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다시 꾸리고 나무모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어 지난해 수백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였다. 이 사실만 놓고보아도 오늘의 산림복구전투에서 우리 일군들이 당정책을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완벽하게 관철하려는 사상관점을 가지고 떨쳐나서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수 있다.

하지만 말로만 결사관철을 외우면서 앉아뭉개며 뚜렷한 목표와 전개력도 없이 눈가림식으로 일하는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수 없다.

위원군의 실태가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군에서는 지난해에 산림조성사업을 심히 형식적으로 하였다.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이게 되여있는 대상지에 나무를 심었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름률을 크게 떨구었다. 이렇게 할바에야 무엇때문에 아까운 나무모만 없애면서 굳이 심었는가 하는것이다.

연사군에서도 양묘장을 제대로 꾸리지 않았다. 특히 야외재배장을 형식적으로 만든데다가 그 리용도 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함이 나타나게 된것은 이곳 일군들이 주인다운 태도가 없이 요술을 피우면서 요리조리 둘러맞추는 식으로 일하였기때문이다. 당정책관철에서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지 않고 눈치를 보며 추궁이나 면하자는 요령주의적인 사업태도의 결과이다.

이렇게 산림복구전투를 실속없이 하거나 소방대식, 오분열도식, 깜빠니야식으로 하여서는 무엇 하나 똑똑히 해놓을수 없다.

지난해 산림복구전투에서 실적을 내지 못한 시, 군의 책임일군들은 걸린것이 결코 조건이 아니라 당정책을 대하는 사상관점과 태도이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 야말로 산림조성사업에서 철저히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그릇된 경향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분발해나서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이번 회의에서 총화된 문제들을 놓고 자기 사업을 다시금 심각히 돌이켜보며 산림복구전투에로 부른 우리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당정책을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무조건 결사관철해나가야 한다.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자기의 뼈를 깎고 피를 바칠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산림복구전투에 떨쳐나설 일군들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과 《자연과의 전쟁, 산림복구전투에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서자!》라는 당의 구호를 심장에, 뼈에 새기고 떨쳐나섬으로써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빛내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윤 용 호

우리 나라 미술의 보물고에 깃든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나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미술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신 50돐을 맞으며

오늘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미술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신 때로부터 5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조선미술박물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미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조선미술박물관을 찾으시여 주체미술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어버이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미술은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되여야 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미술로 되여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조선미술박물관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우리의 미술을 당과 혁명의 리익을 옹호하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미술로,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인민적인 미술로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환적인 계기였다.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하여 빛을 잃었던 우리의 미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방후부터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뜻깊은 그날 박물관을 찾으시여 우리의 미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박물관에 언제부터 한번 나와보려고 하였는데 오늘에야 시간을 내였다고 하시면서 박물관청사건설정형과 참관사업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다음 오랜 시간에 걸쳐 1층부터 4층까지 수십개의 진렬실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였다.

모사전시한 고구려시기의 안악3호무덤벽화를 주의깊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벽화 《방아간》을 보시면서 우리 선조들은 고구려때에 벌써 발방아를 리용하였다고, 안악3호무덤이 고구려사람의 무덤이 틀림없다고 교시하시였다.

민족미술유산에 대한 평가에서 주체성의 원칙,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미술사서술에서 사대주의적이며 민족허무주의적인 일부 그릇된 견해들을 바로잡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미술유산의 수집과 감정, 고증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그 실천방도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서고분벽화 《백호》와 《주작》을 보시면서 잘 그렸다고, 강서고분에는 자신께서도 나가보았는데 강서고분의 벽화를 모사해오기를 잘하였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조선미술박물관에 강서고분의 벽화를 진렬하지 못하였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강서고분의 벽화를 다 모사해두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무덤벽화를 모사하여 박물관에 전시할데 대한 그날의 가르치심에는 건축유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우리 인민들이 박물관과 같은 장소에서 훌륭한 옛 그림들을 아무때건 직접 볼수 있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비껴있었다.

조선미술박물관의 미술작품진렬에서 모사작품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신사임당이 그린 《가지》와 심사정의 《여름의 산막》, 최북의 《사시절》 등 중세미술작품들을 보시면서 잘 수집했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이런 그림들은 다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라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옛날그림들을 보관하였다가 기증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애국자들이라고 교시하시였다.

17세기의 작품인 《초상화》그림을 보시면서 작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물으시고 아직 정확히 모르고있다는데 그래도 알아보아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박물관의 일군들은 미술작품에 대한 학술연구사업에서 과학적고증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8세기의 작품인 《김응서화상》도 보시고 동양화의 특징이 있다고, 김홍도의 작품 《구룡폭》을 보시면서는 죽죽 그렸는데 잘 그렸다고 교시하시였다.

19세기의 작품 《련꽃과 물새》를 보시고서는 색채가 연하고 시원하게 잘 그렸다고, 유화보다 낫다는 평가도 주시였으며 진채화로 된 작품인 《참새》와 《닭》을 보시며 우리의 조선화를 이런 방향에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통적인 민족회화의 계승발전방도에 대해서도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조선화의 우수성과 함께 중세미술작품의 주제내용에서 주로 자연풍경을 많이 그리는데 치중하고 로동생활을 반영한 그림과 인물화가 적다는것등 그 제한성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박물관의 일군들은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민족회화형식으로서의 조선화의 고유한 특징과 사회계급적제한성을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가르치심은 민족회화를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리고 우리 인민의 미학적정서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는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뜻깊은 그날 중세미술작품들을 통한 대중교양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우수관의 작품 《농민생활도》를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품의 웃부분에 부자의 생활을 그리고 아래부분에는 농민들의 생활을 그렸는데 당대 사회의 계급적신분차이에 대하여 불만족하게 생각한것을 잘 표현하였다고, 그때 화가들이 평민들의 사상을 대표하는 계급적립장에 서있었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당시 중세미술작품들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한탓으로 력사주의적원칙에서 작품들을 해설선전하지 못하고있던 때여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는 박물관일군들의 충격은 참으로 컸다.

이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혁명적인 주제의 작품들을 진렬해놓을데 대한 문제, 옛날그림들을 확대하여 모사할데 대한 문제, 작품설명문을 사람들이 잘 알아볼수 있게 크게 써붙일데 대한 문제 등 박물관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50년전 력사의 그날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은 우리 나라 미술발전의 새로운 앞길을 밝힌 등대로 되였다.

주체미술발전에 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그이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구한 력사와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선화를 발전시키는것이 미술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으로 된다는 사상을 천명하시고 조선화발전의 전면적개화기를 마련하시였으며 미술의 모든 종류를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되고있던 제11차 국가미술전람회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형상미술작품창조에서 나서는 문제, 미술작품의 진렬을 미술의 종류별로 할데 대한 문제, 작품의 내용에 맞게 제목을 바로 다는 문제 등 미술박물관과 미술부문앞에 나서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0(1991)년 10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미술론》에서 원작보존을 위한 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미술작품보관관리, 수복, 전시는 원작보존을 위한 3대요소이라는것, 미술원작보관관리체계, 과학적수복체계, 전시작품모사체계를 바로세워 원작보존을 위한 기본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는것, 미술작품보급선전에서 다양성과 기동성, 포괄성과 효과성을 살려 우리 식 사회주의미술을 내외에 널리 소개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는것, 학술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미술문화유물에 대한 고증을 심도있게 하여 인민대중에 의한 문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밝혀내는것이 중요하다는것 등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미술론》에서 밝혀주신 모든 내용들은 박물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조선미술박물관을 더 잘 꾸리도록 여러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조선미술박물관은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는 진렬체계가 확립되고 국보중의 국보인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들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보내주신 미술작품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미술작품들을 수많이 소장한 우리 나라 미술의 보물고로, 민족미술발전의 력사적로정을 해당 시기의 화폭들로 보여주는 전당으로, 주체미술보급선전의 중요기지로 전변될수 있었다.

여러차례에 걸쳐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조선미술박물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학술연구사업과 국보적인 미술작품들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사업, 우리 민족미술의 우수성을 내외에 널리 소개선전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학술과의 연구사들은 중요계기때마다 진행되는 미술전시회의 학술편성안과 진렬전시작품배렬안작성, 영상미술작품자료기지의 콤퓨터화실현, 미술화첩편찬 등 많은 학술적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맡아수행하였으며 군중교양과의 강사들은 미술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작품들에 대한 해설선전을 하는 한편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소개선전하는 편집물들을 품위있게 준비하여 미술박물관을 찾아오는 참관자들뿐아니라 기관, 기업소들, 학교들에 나가 이동강의를 3 000여회나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학생들을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작품보존과의 종업원들도 해당 단위 과학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조선화보호피막제, 조선화종이로화방지제, 유화보호피막제, 유화수복용접착제, 표구풀방부제 등을 연구개발하여 국보적인 미술작품들을 영구보존하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조선미술박물관의 참관자수는 연 730여만명이며 그중 해외동포들과 외국인참관자수는 7만 5 000여명에 달한다.

조선미술박물관의 미술작품들은 오스트리아의 원응용예술박물관 특별전시장에서 진행된 우리 나라 미술전람회 《김일성주석께 드리는 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술과 건축》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때 우리 나라 미술작품들을 본 한 외국인의 반향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주체미술이야말로 세계미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교본으로 된다. 이번 오스트리아에서의 조선미술전람회는 순수한 예술을 제창하면서 보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그림이 진짜예술로 되여온 추상파미술시대가 력사의 기슭으로 밀려나게 되였다는것을 알리는 위험신호로 된다.》

이렇듯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감탄을 금할수 없게 한 미술작품들이 수많이 소장되여있는 조선미술박물관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길이 전하며 우리 나라 미술의 보물고로, 민족미술발전의 력사적로정을 해당 시기의 화폭들로 보여주는 전당으로, 주체미술보급선전의 중요기지로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백성근

훌륭한 민족악기연주가들로 준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간다.
—평양음악학원에서— 본사기자 찍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의 해 선포에 관한

공 동 보 도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은 호상합의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부터 조선에서의 조국해방 70돐과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을 맞이하는 2015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의 해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친선의 해 기간 두 나라는 국가기관 및 지역들사이의 대표단교류와 접촉을 활성화하고 평양과 모스크바를 비롯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여러 도시들에서 공동의 문화행사들을 진행하게 된다.

제30차 김책공업종합대학과학기술축전 개막

제30차 김책공업종합대학과학기술축전이 개막되였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받들고 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은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170여건의 성과자료들을 축전에 내놓았다.

그중에는 《평양시버섯공장의 통합생산체계》, 《수질종합분석장치》, 《선체—주기관—추진기의 합리적결합에 의한 끌배의 성능개선》 등이 있다.

축전은 중공업, 에네르기, 채취금속분과를 비롯한 8개 분과로 나뉘여 발표회 및 전시회형식으로 진행된다.

9일에 있은 개막식에서는 홍서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은데 대하여 말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이 축전을 통하여 연구성과와 경험을 소개하고 현실에 적극 도입하며 대학의 과학연구사업을 한계단 끌어올릴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보았다.

평양시안의 녀성녀로자들과 외국녀성들의 친선모임

평양시안의 녀성녀로자들과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있는 외국녀성들의 친선모임이 10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조선녀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철희, 관계부문 일군들, 조선녀로자문화예술협회 성원들, 평양시안의 녀성녀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국제기구대표부 녀성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조선녀로자보호련맹의 활동정형을 소개하는 다매체편집물을 시청하였다.

이어 조선녀로자문화예술협회 성원들의 예술소품공연이 있었다.

공연무대에는 독창 《어머니의 행복》, 《불타는 소원》, 《세월이야 가보라지》, 군무 《부채춤》, 독무 《환희》, 3중창 《인민사랑의 노래》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내세워주는 우리 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있는 녀로자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공연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열정에 넘쳐 미술작품들을 창작하는 녀성녀로자들의 모습을 보았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몽골에 가는 륙해운성대표단 출발

몽골에 가는 강종관륙해운상을 단장으로 하는 륙해운성대표단이 10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팍일룡 륙해운성부상과 주조 몽골대사관 성원들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생방역사업과 치료예방사업을 개선하여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최대로 발양시키라!

공 동 구 호 에 서

현대화, 정보화실현에 큰 힘을

보건성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예방의학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나라에서 위생방역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위생방역기관은 보건부문의 맨 앞장에서 달려야 할 전초선과도 같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학은 본질에 있어서 예방의학이며 병을 미리 막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것은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임무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위생방역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뜻깊은 올해 나라의 위생방역사업을 담당한 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무겁고 중요하다고 본다.

원장 박명수: 위생방역사업은 병을 예방하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성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각지 위생방역일군들이 과학기술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기 위한 방대한 목표를 내세웠다.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며 지역안의 위생방역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자각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가기 위한 빈틈없는 조직사업도 짜고들고있다.

부원장 홍순광: 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최근 나라의 방역구조를 보다 완벽하게 꾸려 세계를 휩쓸고있는 각종 전염병들이 절대로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이에 따라 중앙위생방역소에서 세계적인 전염병발생동태와 현대적인 과학기술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아래단위들에 정상적으로 전송해주기 위한 자료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년초부터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도와 시, 군위생방역소들사이의 정보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도 전망성있게 벌어지고있다.

기자: 올해 위생방역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문제들에 힘을 넣고있는가.

박명수: 위생방역사업의 현대화, 정보화이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은 각급 위생방역기관들이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위생방역사업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전국적범위에서 위생방역체계가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많은 질병들과 전염병들이 없어진것은 위생방역사업을 잘하였기때문이다.

지난 시기 발생하였던 전염병들은 대체로 한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대부분이 토착전염병들이였다.

지난해 죽음의 병이라고 불리웠던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을 비롯하여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류형의 전염병들을 보면 그 전파가 대단히 빠른것으로 하여 지역과 지역사이, 나라와 나라사이에로 급격히 이어지고있다. 이것은 위생방역부문에서 세계적인 전염병발생동태를 빠짐없이 장악하는 한편 그에 따르는 강력한 대응책을 세울것을 요구한다.

홍순광: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일군들부터가 위생방역사업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와 해박한 지식을 가질 때 옳은 지도방법이 나오고 해당 단위의 현대화, 정보화가 적극 다그쳐지게 된다. 성에서는 주에 한번씩 세계적인 위생방역추세와 전염병발생동태, 역학통보 등에 대한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고있다.

각 도와 시, 군들을 련결하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통하여 방역일군들의 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중에 있으며 현대의학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효능높은 예방약들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심화되고있다.

책임부원 주민녀: 현실은 위생선전활동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생방역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여 모든 사람들이 당의 예방의학적방침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설수 있도록 추동하는것이 다름아닌 위생선전활동이다.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모든 근로자들이 위생지식과 의학상식을 잘 알고 생활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나가도록 하자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의 위생선전이 필요하다.

이미 지난해 위생선전표준직관도안이 완성되여 각 도에 배포되고있다. 뿐만아니라 병원을 비롯한 공공장소들에서 다매체편집물을 통한 선전활동도 벌어지고있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도 있듯이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을 미리막기 위해 벌린 위생선전활동만 놓고보아도 다매체편집물을 통한 선전사업이 실효가 제일 컸다.

책임부원 장춘일: 위생방역부문의 현대화, 정보화사업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라의 전반적인 위생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떨쳐나선 방역부문 일군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다.

우리 성일군들부터가 병을 예방하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고있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치료예방사업의 맨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가겠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적극 떨쳐나가겠다.

본사기자 김옥별

식료품위생과 건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식료가공공업부문에서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식료품을 공업적방법으로 제때에 가공하며 식료품가공에서 위생문화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식료품과 그 가공품의 생산과 리용에서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이다.

사람은 생명활동을 위하여 여러가지 영양소를 식료품형태로 섭취하는데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되지 못하면 사람들의 건강에 엄중한 피해를 주게 된다.

우리 주위에는 사람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수많은 유해인자들이 존재하고있으며 그러한 유해인자들은 그 특성으로부터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성질을 가진다.

식료품위생은 식료품의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이 섭취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식료품의 위생학적안전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 때문에 식료품위생에서는 식료품자체만이 아니라 그의 생산, 제조, 조리기구, 포장, 가공, 보관, 공급 등에 대해서도 론의하게 된다.

식료품은 그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 독성물질, 유해물질,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음식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건강장애를 일으킨다.

식료품생산에서 위생학적요구에 맞지 않는 원료들을 리용하면 오염된 생산품이 나오고 비록 오염물의 농도가 낮아도 생물학적확대작용으로 식료품에서의 유해물질농도가 훨씬 높아져 유기체에 손상을 준다.

또한 생산공정에서 무균, 무진대책을 철저히 세우지 못하면 공기와 물중의 세균, 비루스, 기생충등이 몸안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세계보건기구가 평가한데 의하면 식료품기원과 물기원설사증만으로도 해마다 220만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있으며 그중 190만명은 어린이들이라고 한다.

식료품기원유해물질들을 보면 연, 카드미움, 수은, 아플라톡신, 질산염, 아질산염 등이다. 이러한 유해물질들과 병원체들에 의해 식료품을 통한 각종 중독사고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어 암을 발생시키는 후과들을 초래하게 되는것이다. 따라서 모든 식료품생산단위들에서는 완전한 위생관리규정제도를 만들고 기업소종업원들의 행동을 제도화, 규범화하여 비위생학적인 요소들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HACCP(위험인자분석 및 중요관리점)체계를 광범히 받아들이고있다.

HACCP체계는 식료품공업의 매 고리(원료생산, 접수, 가공, 포장, 저장, 운반, 판매, 소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유해인자들에 대한 예방대책과 관리방법을 확정하여 위험을 없애거나 허용할수 있는 수준까지 낮출수 있는 관리체계이다.

식료품생산에서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에 여러 식료공장들을 찾으시여 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모든 식료품생산단위들에서는 생산공정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며 종업원들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위생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의학과학원 환경위생연구소 소장 정상현

만경대구역 장훈종합진료소에서

위생선전사업의 실효를 높인 비결

당의 예방의학적방침관철과 위생방역사업을 개선하는데서 호담당의사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호담당의사들의 역할을 높여 위생선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있는 만경대구역 장훈종합진료소 의료일군들의 사업이 주목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생선전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여야 조건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 벌릴수 있으며 그 실효성을 더욱 높일수 있습니다.》

이곳 진료소에서는 지난 시기 위생선전을 인민반을 단위로 하여 진행하군 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속에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한것은 위생선전사업을 대체로 초저녁에 진행하다나니 참가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부양가족들이고 퇴근이 늦는 직장세대들에서는 참가하지 못하였던것이다. 또 위생선전에 참가하여서도 잘 리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하여 물어보기를 저어하는 주민들도 없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생선전카드를 만들어 회람식으로 돌려도 보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소장 김옥화동무와 김경심, 로명혜, 강흥순동무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위생선전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모색하던 과정에 한가지 좋은 방도를 찾게 되였다. 호담당의사들이 매 세대들에 대한 검병검진을 나가는 기회에 2차로 위생선전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였다.

그후 의사들은 검병검진을 나갈 때마다 위생선전카드도 준비해가지고 나가군 하였다. 검병검진을 진행하는 동안 가족성원들이 위생선전카드를 읽어보게 하기 위해서였다.

검병검진을 하면서 담화형식으로 위생선전사업이 진행되니 주민들이 잘 리해되지 않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상식을 넓혀나갈수 있었다. 또한 자기의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하여 호담당의사에게 알려주어 제때에 치료대책을 세울수 있게 되였다.

이 방법이 확실히 좋았다.

세대별로 위생선전사업을 진행하니 인식효과가 높아지고 또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생선전을 진행할수 있어 좋았다. 뿐만아니라 전염성질병을 일으킬수 있는 요소들을 제때에 찾아 대책할수 있게 되였다. 이곳 의료일군들처럼 위생선전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할 때 응당한 실효를 거둘수 있다.

주령봉

전쟁광신자들은 무자비한 징벌이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잊지 말라

남은것은 오직 힘에 의한 최후결판뿐이다

지금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남조선전역에서 도발적인 불장난소동을 련일 감행하면서 피냄새맡은 이리떼처럼 기승을 부리고있다. 특히 이번 연습에는 지난 시기와 달리 미제침략군의 연안전투함 《포트워스》호가 참가하여 조선반도연안수역에서의 공격연습에 광분하고있으며 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 맞춤형억제전략 등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고안해낸 모든 북침전쟁각본들이 다 적용되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감행하고있는 지금의 합동군사연습이 결코 년례적인 연습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긴장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예측할수 없는 사태를 조성할것이라고 간주하고있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으며 오직 힘의 대결에 의한 최후의 결판만 있게 될것이라는 무자비한 징벌의 립장을 단호히 천명하였다.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선 남조선괴뢰호전광들과는 더는 상종할 필요가 없다는것이 우리가 내린 최종결론이다.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키는 해로 되게 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였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수 있고 부문별회담도 할수 있으며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그보다 더 큰것도 못할 리유가 없다는 통이 크고 대범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를 위하여 남조선당국에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중단할데 대한 진심어린 충고도 주었다. 그리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북침전쟁불장난소동을 중지하도록 하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도 취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문을 열기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관계개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제안에 호응해나섰더라면 잇달아 북남사이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북남관계는 크게 전진하였을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제안에 대해 《지난 시기와 다를바없는 제안》이니, 《진정성없는 조치》니 하는 고약한 망발을 줴쳐대면서 도리여 악의를 품고 나섰으며 미국과의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할데 대한 요구에 《련합체제가 존재하는 한 훈련은 계속될것》이라고 지껄여대면서 극히 도전적으로 나왔다. 괴뢰당국자까지 미국의 《북붕괴》장단에 춤을 추면서 불순하기 짝이 없는 《개혁, 변화》나발을 서슴없이 불어댔다.

괴뢰들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고있는것은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악랄한 도전이다. 지금 괴뢰패당은 미제침략자들과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에 미쳐날뛰면서도 이번 전쟁연습과 북남관계는 별개의 문제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하지만 대화상대방을 무력으로 해치기 위한 대규모의 전쟁불장난소동을 벌리면서 그것이 북남관계를 해치지 않는다고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곧이들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 괴뢰들은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후 북남사이의 긴장이 다시 완화될것이라는 수작을 늘어놓으면서 우리를 심히 우롱하고있다. 이것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저들에 대한 내외의 규탄여론을 모면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다. 바로 그로 하여 북남관계는 지난 수십년간 모진 시련을 겪어왔다. 이제 더이상 그런 북남관계파국의 악순환을 되풀이할수 없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함으로써 괴뢰들은 북남관계개선의 아까운 기회를 완전히 차버렸으며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적대적기도를 남김없이 드러내놓았다. 괴뢰호전광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도발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나선 이상 우리가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에 대해 그 어떤 미련이나 기대도 가질것이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지난 2년 남짓한 기간 우리가 남조선당국에 베풀수 있는 아량을 다 베풀고 지켜볼대로 다 지켜본 끝에 가지게 된 확신이기도 하다. 이제 북남관계에서 남은것은 오직 최후의 결판, 군사적대결뿐이다.

선의에 악의로 대답해나서는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우리는 신의있는 상대는 선의와 아량으로 대하지만 악의를 품고 선불질을 걸어오는 도발자들에게는 추호의 자비도 모른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우리를 얕보고 함부로 덤벼든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당하고 영웅적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었다. 전후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군대는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미쳐날뛰는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을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징벌하며 백승의 력사를 아로새기여왔다.

괴뢰들이 지금도 악몽처럼 여기는 연평도포격전은 도발자들을 용서치 않는 백두산혁명강군의 단호한 의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당시 우리의 영용한 해안포병들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령해에 제멋대로 불질하며 도발을 걸어오는 괴뢰군악당들에게 멸적의 불벼락을 퍼부어 도발의 본거지인 연평도를 《죽음의 망령이 배회하는 지옥》으로, 《모든것이 불타고있는 재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우리의 강력한 화력타격에 얼마나 질겁했으면 괴뢰들이 《확전》만은 피해야 한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포사격을 즉시 중지해달라.》고 구차스레 애걸복걸했겠는가.

괴뢰들이 그 쓰라린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선불질을 해온다면 우리는 연평도포격전과는 대비도 되지 않는 멸적의 불세례를 도발자들의 머리우에 들씌울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이 그처럼 믿고있는 미국의 핵무기도, 최첨단장비도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자비한 타격앞에서는 맥을 출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인민군은 창건된 첫날부터 백전백승만을 떨쳐온 불패의 강군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우리 혁명무력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있다. 최근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추격기, 폭격기련대들의 비행전투훈련과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 섬화력타격 및 점령연습들은 적들이 우리의 신성한 령해, 령공, 령토에 단 한점의 불찌라도 떨군다면 다시는 선불질을 못하게 원쑤들의 아성을 통채로 불바다로 만들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일당백장병들의 멸적의 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지금 우리의 혁명무력은 원쑤격멸의 서리발총검을 비껴들고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무자비한 대응타격으로 도발자들을 쓸어버리고 조국통일대전을 최후승리로 결속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더욱 억세여지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에 북침합동군사연습으로 도전해나선 후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것이다.

은 정 철

핵전쟁침략연습을 당장 걷어치우라

총련일군들 담화 발표

◇ 총련일군들이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발광적인 전쟁연습소동을 규탄하여 7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강추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공화국의 평화적제안에 미국과 괴뢰패당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으로 도전해나섰다고 규탄하였다.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념원하는 조선녀성들의 마음에 칼질하고 일촉즉발의 긴장을 몰아오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전쟁소동을 전체 녀성동맹일군들과 동포녀성들의 증오와 분노를 합쳐 견결히 규탄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동포녀성들이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무모한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거족적투쟁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리정만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리사장은 미국이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제안을 무시하고 《추가제재》니, 《붕괴》니 하며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전체 재일조선상공단체 일군들과 재일동포상공인들이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전쟁도발책동을 견결히 단죄규탄하며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리동제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이 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년례적》, 《방어적》이라는 궤변으로 정당화하고있지만 그것은 북의 수뇌부 《제거》와 《평양점령》야망을 이루기 위한 침략연습이라고 폭로하였다.

그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내외의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요구하였다.

김용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의 정세는 미국과 그 앞잡이 남조선괴뢰들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원흉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이 북과 남, 해외의 동포청년들과 발걸음을 맞추고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적극 떨쳐나설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리영수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회장은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합동군사연습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침해이며 군사적도발인 동시에 조선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라고 단죄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성명 발표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가 5일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철천지원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2일부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남조선전역에서 또다시 벌려놓았다고 규탄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는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핵전쟁도발책동을 준렬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재중조선인들은 미국과 괴뢰패당의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어머니조국을 수호하고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반미통일성전에 결연히 떨쳐나설것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조선인민은 인류사가 알지 못하는 천변만화하는 주체적인 전법을 구사하시는 위대한 백두산위인을 높이 모시고있다. 또한 날강도 미제가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최강의 정신력과 불굴의 사상의지로 만장약되여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반공화국전쟁책동이 가져올 파멸적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최후승리는 정의의 위업실현에 일떠선 우리 조선인민에게 있다. 침략자, 도발자들은 몸서리치는 파멸적순간이 다가오고있다는것을 명심하라.

【조선중앙통신】

침략기도가 날로 명백해지는 불장난

심상치 않은 요격미싸일배비책동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이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이 날로 짙어가고있다. 해마다 벌어진 북침합동군사연습이 례외없이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과 《점령》을 노린것이였지만 이번 연습은 새해벽두부터 미국이 《북붕괴》폭언을 공공연히 내뱉으며 반공화국제재소동을 더한층 강화하고 괴뢰패당이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의 기회를 차버린 가운데 감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매우 위험천만하다.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내외호전광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일부 훈련을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한것이다.

련합해상훈련이 그 실례이다.

지난 2월 27일 미국과 괴뢰들은 이번 군사연습의 일환으로 되는 련합해상훈련을 먼저 시작하였다. 3월 중순까지 조선남해, 서해, 동해에서 차례로 진행되는 이 훈련에는 괴뢰해군의 전투함선들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직승기, 미국의 이지스구축함 《마이클 머피》호, 《MH—60R》직승기 등이 참가하고있다. 미제7함대의 기함인 《블루릿지》호는 조선반도주변수역에 머무르면서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전투함선들을 지휘한다고 한다.

이로써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시작부터 자기의 침략적정체를 낱낱이 드러내게 되였다.

이것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자 바빠난 괴뢰군부패거리들은 미군전투함선들의 일정에 맞추다보니 《불가피하게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변명해나섰다. 하지만 남조선의 언론들과 각계는 련합해상훈련일정을 앞당긴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북을 자극하면서 군사적대결을 로골적으로 선언한것이나 다름없다고 평하였다.

우연한것이 아니다. 지난 2월 27일 조선남해에서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그 누구를 《격멸》한다고 고아대면서 전술기동과 련합해상사격훈련을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3월 2일에는 해양차단작전이라는것을 벌려놓고 해상으로부터의 북침공격작전을 숙달하는데 분주탕을 피웠다.

미국과 괴뢰들이 감행하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그 무슨 《급변사태》에 대비하는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긴장격화와 전쟁발발의 근원으로 되고있다. 연습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제거》작전, 《점령》작전 등이 벌어지게 된다. 더우기 호전광들은 이달중에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 등 기존의 북침공격계획들을 통합한 《작전계획 5015》라는것을 발표하려 하고있다.

모든 사실들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년례적인 《방어훈련》이 아니라 새 전쟁도발에 목적을 두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말하여 지금 내외호전광들은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해 미쳐날뛰고있으며 이로 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최악의 지경에 이르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강변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도발》의 감투를 씌우고 긴장을 조성하지 말라고 고아대는것은 실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망동이다. 호전광들의 그따위 거짓타령을 곧이들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호전광들은 제 스스로가 자멸을 재촉하고있다. 우리 군대의 지상과 해상, 수중과 공중, 싸이버공간의 모든 타격수단들이 북침전쟁도발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적들의 모든 대상물들을 조준경안에 집어넣고 멸적의 시각만을 기다리고있다.

본사기자 장 윤 남

최근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싸일 《싸드》의 남조선배비문제로 여론이 분분해지고있는 속에 괴뢰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국회》에 나타났다. 그는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미국이 《요청한적이 없다.》느니, 그와 관련한 《결정이나 움직임도 없다.》느니 하며 아닌보살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당 족속들이 《싸드》도입필요성을 련이어 운운하자 괴뢰국방부는 며칠전 대변인을 내세워 그것을 구매할 계획이 없다고 또다시 시치미를 뗐다.

한편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실행을 위한 본격적인 합의단계에 들어갔다느니, 《싸드》는 북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력량》이라느니 하고 떠들던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그 어떤 합의도 이룩된것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발언내용을 부정하는 요술을 부리였다.

하다면 정말 미국과 괴뢰당국이 《싸드》의 남조선배치문제를 놓고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았단 말인가. 사실상 미국과 괴뢰들의 처사는 눈감고 아웅하는 격의 가소로운 추태, 서푼짜리 연극이다.

미국이 지난해에 남조선당국의 청탁에 의하여 진행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를 위한 회담을 전후한 시기부터 《싸드》의 배비와 관련하여 괴뢰들에게 부단히 압력을 가하여왔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미국은 《싸드》의 남조선배비와 관련한 자료들을 일부러 여론에 내돌리면서 괴뢰들을 압박하였었다. 미국에 의존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동족압살야망을 실현하려고 발광하고있는 괴뢰당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수밖에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괴뢰패당은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우고 내외의 규탄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몇가지 사실을 보기로 하자.

얼마전 미군부의 한 인물은 그 무슨 《북의 핵과 미싸일위협》에 대해 운운하며 가장 중요한것은 미, 일, 남조선의 미싸일방어체계구축이라고 떠들었다. 그러면서 미, 일, 남조선사이의 군사정보공유문제를 거들었다. 남조선 각계가 일본에 재침의 길을 열어주고 조선반도에서 북침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것으로 하여 강력히 규탄배격하는 미, 일, 남조선사이의 군사정보공유문제까지 운운하며 미싸일방어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줴친 이자의 망발은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바빠맞은 괴뢰당국자들은 군사정보공유이외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론의한적이 없다.》느니, 《미싸일방위협력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라느니 하고 꼬리를 사리였다.

이뿐이 아니다. 며칠전에도 미국방성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싸드》의 조선반도배치문제가 남조선당국과 지속적으로 론의되고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놓고 남조선 각계가 들고일어나고 주변국가들이 신경을 곤두세우자 괴뢰들은 파문을 가라앉히기 위해 급급하였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리 없다. 얼핏 보기에는 《싸드》의 남조선배치문제를 놓고 상전과 주구사이에 리해상착오나 견해의 불일치가 있는듯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공모결탁이 매우 심도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반증해줄뿐이다.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하나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패권적지위를 확립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히 파괴하는 모험적인것으로 하여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싸드》는 임의의 순간에 방어로부터 공격으로 이행할수 있는 2중용도의 장비라고 한다. 또한 그의 필수적요소인 《X—밴드》레이다는 그 탐지거리가 1 000km이상에 달하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주변나라들까지 자기의 감시권안에 넣게 된다. 결국 미국이 강행하려 하고있는 《싸드》의 남조선배비는 단순히 그 무슨 《미싸일위협》에 대비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 나라들을 위협하면서 패권적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흉악한 속심의 발로인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계책은 《싸드》의 사거리를 대폭 연장시키려 하고있는데서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지난 1월 미국의 국방전문출판물들이 전한데 의하면 미국은 《싸드》체계를 개조하여 그 사거리를 현재에 비해 대폭 늘이려 하고있다. 그 사거리가 얼마만큼 늘어나겠는가 하는것은 미국의 전략적리익의 견지에 달려있다. 미국은 이것이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을 겨냥한것이라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3 000만US$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였다고 한다.

우리 공화국뿐만이 아닌 주변나라들까지 겨냥한 《싸드》가 남조선에 배치될 경우 그 후과는 엄중할것이다. 사실들은 조선반도가 새로운 세계열점지역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예고해주고있다.

미국이 지금 《싸드》의 남조선배치와 관련한 저들의 발언내용을 부정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다른 여론을 슬슬 내돌리고있는것은 주변나라들의 반발로 난처한 처지에 빠진 남조선당국을 압박하여 저들의 목적을 한사코 실현하려는 술책의 발로이다. 남조선언론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치고 빠지는 식》으로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것이라고 한결같이 평하였다.

《싸드》의 남조선배치와 관련한 정세흐름은 미국과 괴뢰패당이야말로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핵전쟁위기를 몰아오는 극악한 호전광무리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 성 호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하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무자비한 징벌뿐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괴뢰패당이 극우보수깡패무리들을 내세워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하고 훼손하는 극악무도한 망동을 부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0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86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국대사 응징사건을 계기로 《종북》소동과 반공화국대결광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있다.

괴뢰패당은 매일과 같이 어중이떠중이 극우보수깡패들을 내몰아 《종북세력규탄국민대회》니 뭐니 하는 집회를 벌려놓고 극도의 반공화국대결광란을 일으키고있다.

특히 《어버이련합》의 산송장들과 《고엽제전우회》를 비롯한 극우보수깡패무리들이 련일 서울한복판에 쏠어나와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하고 훼손하는 극악무도한 망동을 부리고있다.

괴뢰패당의 사촉하에 감행되고있는 극악한 광란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중대도발이며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행위이다.

내외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이번에 남조선에서 일어난 미국대사 응징사건은 날강도적인 북침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미국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분노와 항거의 표시이다.

그러나 괴뢰패당은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의로운 행동을 《테로》와 《살인미수행위》로 몰아가다 못해 우리와 억지로 련계시켜 파쑈적인 《보안법》에 걸어 처형하려고 발악하면서 극우보수떨거지들을 총동원하여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함부로 모독하는 천인공노할 대결광대극까지 벌리게 하고있다.

여기에는 미국상전에게 아부아첨하여 환심을 사고 통일애국세력을 말살하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미자주, 반《정부》기운을 거세하고 반공화국모략책동에 더욱 매달려보려는 추악한 기도가 깔려있다.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외세는 하내비로 섬기면서 외세의 침략전쟁책동에 항거하는 남조선인민들을 파쑈탄압으로 억누르고 짓밟는 괴뢰패당과 같은 추악한 친미사대매국노, 극악한 동족대결광, 희세의 파쑈무리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괴뢰보수깡패들의 범죄적망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으며 극악한 모략의 소굴들을 산산이 폭파해버리고 역적패당과 그 끄나불들을 씨도 없이 죽탕쳐버릴 멸적의 의지로 피를 끓이고있다.

우리 혁명무력은 이미 생명보다 귀중한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 단호한 의지를 선언하였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훼손하는 대죄악을 저지른 도발자들은 이 하늘아래에서 살아숨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철면피한 괴뢰집권자의 사대매국적망동을 비난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회원 리준무가 4일 괴뢰집권자의 사대매국, 동족대결정책을 규탄하는 글을 인터네트홈페지에 실었다.

글은 현 집권자가 《3.1절기념사》라는데서 장황하게 요설을 늘어놓았으나 민중의 기대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반민중적, 사대매국적, 반통일대결적인 추악한것들로 가득차있다고 비난하였다.

미국과 결탁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와 같은 대규모북침핵전쟁연습책동에 광란적으로 매달리면서 독선과 전횡,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로 일관되여있는 론거를 내놓음으로써 《철면피의 극치》라는 혹평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집권자가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는 남조선경제를 살리겠다는 허무맹랑한 잡소리를 늘어놓은것은 정책실패의 무능력과 책임을 가리워보기 위한 황당한 궤변이며 민심에 대한 우롱이라고 단죄하였다.

집권자가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을 해치는 전쟁연습에 매달리고 국제무대에서 《북인권》을 떠들어대며 동족을 악랄하게 헐뜯는 추태를 부렸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해외를 싸다니며 북을 반대하는 치졸한 구걸행각을 벌려놓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지금 이 시각 남조선에서 《년례적》, 《방어적》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쏟아붓기 위한 침략연습이라는것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화》타령만 늘어놓고있다고 조소하였다.

미국과의 공조는 일장춘몽이요, 민족공조는 영원무궁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보게 한다고 글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비참한 녀성인권실태에 대해 폭로

녀성들은 인간답게 살고싶다, 녀성의 권리를 보장하라

서울에서 반《정부》투쟁 전개

7일 서울의 곳곳에서 녀성로동자들의 권리실현을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민주로총은 서울광장에서 《차별과 폭력없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한 민주로총 위원장 한상균은 《좋은 일자리》를 운운하던 박근혜《정권》이 오히려 시간제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이 땅의 녀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있다고 말하였다.

절대다수의 녀성들이 최저임금에 시달리며 가정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고있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이어 민주로총산하 각 단위 녀성로동자들이 로동현장에서의 로동운동탄압, 차별과 폭력, 저임금 등 비참한 녀성인권실태에 대해 고발하였다.

발언자들은 로동현장에서 녀성들은 폭언과 모욕, 성희롱을 당하고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렬악한 로동조건은 녀성로동자들을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한다고 비난하였다. 업주측이 《비용절감》의 리유로 녀성들의 임금을 동결시키고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데 대해 절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업주들과 당국이 부당한 해고조치에 항의하는 녀성로동자들의 롱성과 파업투쟁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며 투쟁참가자들을 징계처벌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녀성들은 인간답게 살고싶다고 하면서 당국의 횡포가 우심할수록 녀성로동자들의 인권과 로동권을 위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앞장에서 싸울것이라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보신각까지 시위행진을 벌렸다.

이날 남조선로총도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시간제 일자리확대정책을 페지하고 비정규직녀성로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할데 대한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공공운수로조와 각 대학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녀성로동자들도 각각 집회를 열어 녀성의 권리를 보장할것을 괴뢰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에서 녀성로동자들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투쟁

남조선녀성로동자들 부당한 차별에 항의

남조선의 민주로총소속 녀성로동자들이 5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녀성로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회할것을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녀성로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투쟁이 있은 때로부터 100여년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차별은 계속되고있다고 말하였다.

녀성들이 같이 일하던 동료가 로동재해로 사망하였어도 마지막길조차 함께 있지 못하고 고된 로동에 내몰렸지만 차례지는것은 보잘것없는 임금뿐이라고 토로하였다.

계속되는 고용불안이 녀성들의 목을 조이고 고된 로동강도와 각종 로동재해로 녀성로동자들이 병들어도 업주측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정규직으로 일하는 녀성들인 경우에도 처지는 마찬가지라고 개탄하였다.

그들은 녀성이라는 리유로 차별받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녀성들이 인간답게 사는 그날까지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계략을 꿰뚫어보다》

인디아학자 꾸마르 굽따의 글

중국의 인터네트신문 《제4언론》, 《1코리안뉴스》와 재미동포전국련합회의 홈페지, 트위터에 최근 인디아학자 꾸마르 굽따가 쓴 글 《미국의 계략을 꿰뚫어보다》가 게재되였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지난 1월 25일 나렌드라 모디수상이 미국대통령 오바마와 뉴델리에서 수뇌자회담을 가진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에 대한 엇갈린 견해들이 나오고있는 때에 나는 미국의 관여로 하여 세계 여러곳에서 벌어지고있는 여러가지 현실에 대한 개인적견해를 서술하는 기회를 가지였다.

우크라이나사태가 발발한 후 유럽은 미국의 사촉하에 대로씨야제재작전을 편것으로 하여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

농업을 비롯한 경제의 모든 부문들이 쇠약해졌으며 유로의 시세마저 1€에 1.38US$계선으로부터 1.12US$계선으로 떨어졌다.

에스빠냐외무상은 지난 2월 9일 대로씨야제재로 유럽동맹이 이미 210억€의 손실을 입었다고 실토한바 있다. 결국 유럽은 대로씨야제재를 계속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였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지난 1월 16일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 쟝 클로드 융케르는 빠리에서 한 연설에서 로씨야가 다시 전략적동반자로 될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로씨야를 공격하는 조치들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현재 수상 캐머론이 이끄는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대로씨야제재를 달가와하지 않거나 중지할것을 주장하고있다.

그러면 미국은 왜 대로씨야제재를 유럽에 강요하였으며 유럽은 왜 손해막심한 이런 행위를 단행하였는가 하는것이다.

대답은 명백하다. 미국이 로씨야보다도 유럽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유럽에 강요하였으며 우둔한 유럽은 현명하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국의 지시에 복종한것이다.

전유럽에 대한 도청행위라든가 랭전시기부터 이어져오고있는 대미굴종심리와 같은 압력이나 타성이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미국은 유럽의 대로씨야경제제재를 실현시키고는 돌아앉아서 자기는 로씨야와의 무역액을 줄인것이 아니라 오히려 6%씩이나 늘이였다.

미국은 유럽을 비롯한 자기 동맹국들을 희생시켜 자기 경제의 쇠퇴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려 하고있다.

최근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는 유로와 여러 화폐들에 비한 미딸라의 강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딸라리자률을 높일 예정이라고 하였다.

문제는 세계문명의 창시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유럽이 어떻게 되여 자기 아들이나 손자벌이나 같은 미국에 속히웠는가 하는것이다.

유럽의 두뇌진이 미국의 두뇌진보다 못하단 말인가.

미국이 그렇게까지 교활한줄은 몰랐다고 대답하겠는데. 어쨌든 유럽의 지도층과 국회의원들, 두뇌진은 미국이 로씨야와의 무역액을 줄이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내다보지 못한 과오를 범한데 대하여 유럽국민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보도된바와 같이 전 미국집권자 레간의 보좌관이였던 로버츠와 리베리아의 대학교수 씨럴 브로데릭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미국은 생물전쟁을 목적으로 여러해전에 벌써 서아프리카에 생물무기연구소들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에볼라비루스의 원종을 만들어냈으며 미국방성은 2014년 기네와 시에라레온에서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이 발병되기 몇주일전에 1억 4 000만 US$를 들여 에볼라비루스와 관련한 생체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문제에서도 유럽의 경우와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왜 서아프리카나라들의 정부들은 자국에서 미국의 생물무기연구소설치와 에볼라비루스 생체실험을 막지 못하여 지금 그처럼 혹심한 참사를 당하고 있는가?

그들은 미국이 그처럼 교활하고 야만적인줄은 몰랐다고 할것이다.

그렇다. 미국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어떤 비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도 가림없이 다 쓰고있는 악의 제국이다.

이 세상에 미국이 하자는대로 해서 피해를 보지 않은 나라와 집단은 하나도 없다. 이라크, 이전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우크라이나, 팔레스티나 등등 실례들은 너무나 많고도 많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의 계략에 넘어가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자기 나라의 리익을 해치는 정부들이 있다. 남조선의 경우도 그렇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포위환을 조이면서 동쪽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군사적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남조선과 함께 대규모전쟁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이 전쟁연습들은 중국과 북조선뿐아니라 남조선에서도 평화 및 경제파괴의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전쟁연습이 벌어질적마다 남조선주민들은 불안에 휩싸여있으며 세계금융 및 주권시장들에서 남조선의 원시세와 중요기업주권시세들이 떨어진다.

북조선은 미국에 대조선적대시정책포기를 요구하면서 남조선에서의 전쟁연습을 림시 중지하면 핵시험을 림시 중지하겠다는 중요한 제안을 하였고 남조선에는 통일협상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이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남조선을 희생시켜 중국을 제압하려는 자기의 야망을 포기할수 없다는것을 시사하였으며 자기네가 바라는것은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는 남조선에서 계속 전쟁연습을 벌리는것이라는것을 충분히 시사하였다.

조선이 분렬되여있어야 미군의 남조선장기주둔에 의거한 중국제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얼마나 강렬하였던지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지난 1월 1일 김정은령도자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조선통일협상제안을 청취하자마자 말썽많던 하와이골프장으로부터 백악관으로 숨가쁘게 돌아와 1월 2일에 추가제재를 가할데 대한 《대통령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그때로 말하면 미국경찰에 의한 흑인사살이 련이어져 반인종주의폭동이 미국전역을 휩쓸던 때인데 흑인인 미집권자가 그것을 외면하고 조선관련조치를 취한것을 보면 오바마의 조선평화반대심보가 얼마나 고약한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

미국잡지 《행정정보주보》(2015년 1월 9일)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조치는 북조선은 물론이지만 본질적으로 남조선과 로씨야, 중국을 더 겨냥하고있는것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그 잡지는 또한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미국 《쏘니 픽쳐스》영화제작보급사의 《더 인터뷰》영화제작을 장려하고 거기에 가담함으로써 미국법전 18장 871항과 미국정령 11905와 12333을 란폭하게 어겨 33달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 중죄를 지었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대로씨야제재를 통해 유럽을 약화시킨것처럼 미국은 대중국압박과 대북조선제재를 통해 남조선을 끊임없이 약화시키고있는중인데 미집권자의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보여주는것처럼 그 악랄성은 유럽의 경우보다 더하다.

남조선은 미국의 회유와 강박에 넘어가 최근 몇년동안에만도 1 000억US$이상의 재정을 미국제무기구입에 소비한것을 비롯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내가 상기의 견해를 밝히는것은 우리 인디아도 미국을 벗으로만 순진하게 보지 말고 각성을 가지고 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때문이다.

어쨌든 국익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는가.

【조선중앙통신】

반인륜적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최근 일제가 감행한 야수적만행을 고발하는 자료가 새로 폭로되여 우리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태평양전쟁시기 《련합군》에 포로된 일제침략군의 심문자료가 공개되였다.

그에 의하면 침략전쟁에 미쳐날뛰던 일제가 1942년 당시 버마(지금의 먄마)북쪽의 여러곳에 《위안소》들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는데 거기서 종사한 성노예들이 모두 조선녀성들이였다.

이것은 일제의 성노예범죄를 자료적으로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뚜렷한 증거이다.

일본군성노예범죄가 특대형반인륜적범죄라는것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제는 조선강점시기 《군대를 위안한다.》는 명목하에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수많은 조선녀성들을 중국이나 멀리 동남아시아나라들, 태평양섬들에 있는 저들의 《위안소》들로 끌고갔다.

일제는 10대의 미성년소녀들로부터 시작하여 20대의 처녀들은 물론 애기어머니들까지 무려 20만명이나 강제련행, 랍치, 유괴하여 저들의 침략전쟁터들로 끌고다니였다. 녀성들을 사람이 아니라 저들의 수욕을 충족시켜주는 동물 아닌 동물로 여기고 그들에게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 온갖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였다.

일제의 야수적만행에 의해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무참히 숨진 조선녀성들은 헤아릴수 없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도 수치와 모멸감, 고통속에서 살다가 비명에 죽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 성노예들의 비참한 운명이였다.

인류력사는 수많은 전쟁사를 기록하고있다. 하지만 그 어느 갈피를 헤쳐보아도 일제와 같이 수많은 타민족녀성들을 대량적으로 성노예범죄의 희생물로 만든 례는 없다.

죄를 지었으면 사죄하고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일본은 특대형반인륜적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배상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날 저들이 저지른 죄행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할 대신 오히려 력사를 부정하고 외곡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일본의 극우익분자들과 보수정객들은 일제의 성노예범죄를 《매춘업자들의 돈벌이행위》로, 그 무슨 《자원적인 행동》으로 묘사하면서 그 강제성을 부정하다 못해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앞에 있는 일본군성노예소녀상을 《매춘부》를 상징하는것으로 모독하는 합성사진을 인터네트싸이트에 뻐젓이 올려놓는 망동도 부리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일본반동들은 미국땅에 세워진 일본군성노예소녀상을 철거시키지 못해 모지름을 쓰고있으며 《전쟁을 했던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다.》고 줴쳐대며 추악한 성노예범죄행위를 정당화해나서고있다.

온 세계가 그 너절한 행동에 침을 뱉고있는데도 정계의 인물들이 나서서 다른 나라의 교과서들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이 사용되였다느니,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담겨져있기때문에 수정을 요구하였다느니 뭐니 하는 넉두리를 늘어놓고있다.

올해 4월에 다시 개관되게 될 일본의 전쟁박물관 《오사까국제평화쎈터》의 전시내용은 죄악에 찬 력사를 감추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잔꾀를 잘 보여주고있다.

처음 개관할 당시 조선전시부문에는 《침략》이라는 표현이 많았으며 일제의 범죄상과 그것을 반대하여 일어난 반일운동이 상세히 설명되여있었다. 그런데 일부 우익분자들이 이러한 전시내용을 《자학적》이라고 우겨대여 전시관을 일시 페관하고 저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전시내용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침략》이라는 표현까지 삭제하였다. 다시 개관할 때에는 전시내용을 오사까공습피해를 중점으로 하면서 청일전쟁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종결까지의 경위를 10분도 되나마나한 동영상과 해설로 대충 굼때려 하고있다. 그 짤막한 시간에도 《침략》이라는 표현은 없으며 조선에서의 일본통치가 온갖 미사려구로 꾸며져있다.

자루속의 송곳은 삐여져나오기마련이다. 력사적사실은 지워버릴수 없으며 범죄사실은 절대로 감출수 없다.

반인륜적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일제가 조선민족을 대상으로 저지른 씻을수 없는 죄악에 찬 력사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더욱 뚜렷이 새겨지며 분노의 감정을 더해주고있다.

일본은 하루빨리 그릇된 정책을 버리고 늦게나마 과거범죄를 성근하게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충분한 배상을 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김 국 철

미국의 반인륜적범죄를 단죄하는 인터네트회의

영국에서 진행

미국의 반인륜범죄행위를 폭로규탄하는 인터네트회의가 2월 26일 영국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영국신공산당,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인 영국조선친선협회 대표 더모트 하드슨은 보고에서 최근 미중앙정보국의 고문만행과 그를 묵인한 일부 나라들의 범죄 그리고 1950년대 조선전쟁시기 미제가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세균전과 화학전만행을 폭로단죄하였다. 토론자들은 미중앙정보국이 세계곳곳에 비밀감옥을 설치해놓고 운영하면서 수감자들을 고문, 학살한데 대하여 까밝혔다. 또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가 무고한 우리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치떨리는 만행에 대해 사죄는 고사하고 오히려 반공화국《인권》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고 주장하였다.

회의에서는 유엔과 미행정부, 영국의 각 언론기관들과 사회단체들에 보내는 영국조선친선협회의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결의문은 본 회의가 미국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을 반대하여 저지른 온갖 반인륜범죄행위들과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의 위선적인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본질을 폭로하기 위하여 소집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과 인종차별, 비법도청, 고문 등으로 악명떨치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 인권불모지이다.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세균전과 화학전만행은 명백히 국제법위반이다. 미국의 범죄는 당시 국제조사단성원으로 조선을 방문하였던 한 영국학자의 기록과 포로된 미군비행사들의 자백을 통해서도 명백히 증명되였다.

미국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세균전과 화학전에 패망한 일본군잔당들을 끌어들였다. 또한 수많은 세균 및 화학무기들을 투하하여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결의문은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고문, 암살, 도청을 비롯한 비인간적인 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국은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자들의 허위증언에 기초하여 있지도 않은 조선의 《인권문제》를 조작하고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우리는 유엔인권리사회와 기타 국제기구들이 미국의 반인륜범죄에 대한 완전하고도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 단죄

도이췰란드반제연단이 날로 악랄해지고있는 미제의 대조선압살책동을 규탄하여 5일 도이췰란드주재 미국대사관에 항의편지를 보냈다.

편지는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인권》소동에 미쳐날뛰고있는데 대하여 단죄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래전에 남조선을 타고앉은 미국은 사회주의조선을 반대하는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과 비렬한 심리모략전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국은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있다.

미국은 나가사끼와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여 완전한 페허로 만든 세계최초의 핵무기사용국이다.

조선이 강력한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춘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력사적으로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학살을 일삼아온 미국이야말로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조선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가장 공명정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끝끝내 남조선당국과 함께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을 강행하는것으로 이에 대답해나섰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러 나라에서 자연피해

폭풍과 큰물

탄자니아의 신양가주에서 최근 폭풍과 큰물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5일현재 42명이 목숨을 잃고 8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137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였다. 또한 많은 집짐승이 물에 떠내려가고 농작물들이 못쓰게 되였다.

산불

남아프리카의 케이프 타운에서 최근 산불이 일어나 피해를 입고있다. 며칠째 계속된 산불로 3일현재 수십채의 살림집이 불타버리고 수백명이 긴급대피하였다.

눈사태

아프가니스탄에서 최근 눈사태에 의한 인명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1일현재 사망자수는 268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에스빠냐에서 폭설

총격사건소동

카나다의 토론토시에서 최근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물의가 일어났다. 시에 있는 한 식료품상점에서 말다툼끝에 벌어진 총격사건으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선중앙통신】

침략적인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 규탄

여러 나라에서 성명 발표

로므니아근로자협회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반도에 새 전쟁이 발발할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미국과 그에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남조선괴뢰들은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그들이 떠드는 《년례적》, 《방어적》이니 하는것들은 한갖 구실에 지나지 않으며 대규모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예비전쟁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는 침략적인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고 단호한 징벌을 선언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지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전개된 모든 침략무력들을 철거할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되고 강위력한 군대를 가진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으며 종국적인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불을 즐기는자들은 불에 타죽기마련이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 반미성전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언제나 정의로운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을것이다.

* *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단체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오스트리아 고오스트리아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청년소조는 3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사회주의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할것이다.

조선인민군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무력으로 담보할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우리는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필생의 념원인 조선통일이 평화적방법으로 이룩되기를 바란다. 또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심사숙고할것을 경고한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책동을 단호히 물리칠것이다. 슬로베니아조선친선협회는 4일 무력을 긁어모아 무모한 전쟁연습을 벌리는것은 평화에 대한 도전이며 조선반도에서의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행위이라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긴장격화를 통해 누가 리득을 보며 누구에 의해 평화가 파괴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적발전을 위하여 그 누구를 위협하고 긴장시키는 모든 행위들을 즉시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핵활동을 멈추지 않을 립장 천명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4일 한 회의에서 나라의 평화적핵활동을 멈추지 않을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이란정부는 렬강들과의 핵협상에서 자기의 양도할수 없는 권리가 무시당하는 협정에 절대로 조인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렬강들이 핵관련합의를 이룩하는데 부대조건을 내세우는것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환경보호사업을 강화할 립장 강조

브루네이공업 및 1차생산물자원상이 1일 텔레비죤방송과의 회견에서 환경보호사업을 강화해나갈 정부의 립장을 밝혔다. 그는 브루네이가 독립이후 지난 수십년간 나라의 산림과 바다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하면서 환경파괴를 동반한 발전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직도 환경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하면서 그는 정부가 나라의 발전과 환경보호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범죄방지투쟁

로씨야의 모스크바와 싼크뜨-뻬쩨르부르그 등 여러 도시들에서 최근 무기밀수업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이 벌어졌다. 작전과정에 14명의 범죄자들이 체포되고 70여정의 각종 무기와 많은 량의 폭발물과 탄약이 압수되였다 한다. 3일 련방안전국이 밝혔다.

환경보호노력

레바논정부가 최근 환경을 보호하고 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전략실행에 착수하였다. 이 전략에 따라 모든 국가개발계획들은 각계층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다고 한다. 3일 이 나라 환경상은 사회, 경제, 행정 등 각급 단위들에서 이 전략실현에 중심을 두고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란에서도 환경보호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테헤란시당국은 앞으로 4년동안에 도시의 대기오염도를 50% 낮출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또한 자동차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지하철도로선을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전염병방지성과

말따에서 홍역방지사업에 힘을 넣은 결과 어린이들에 대한 홍역와찐접종률이 99%에 달하였다. 최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나라들사이의 협조

먄마와 라오스가 4일 정치, 사회안전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2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방위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할데 관한 문건에 조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화파괴자의 추악한 정체는 낱낱이 드러났다

미국이 조미대화문제를 들고다니며 허튼 나발을 불어대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무성 부장관과 대조선정책특별대표,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우리와의 대화문제를 거들면서 《진정성》있는 대화를 모색한다는 미국의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느니, 대화의 문을 항시적으로 열어놓고있으며 북남대화를 적극 지지한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였다.

그런가하면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지한 대화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요컨대 저들은 대화를 원하고있는데 우리때문에 그것이 진척되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미국은 고의적으로 사태를 외곡하고있다. 원래부터 우리에 대한 체질적이며 병적인 거부감에 빠져있는 미당국자들이 입을 벌릴 때마다 늘 하는 소리란 전부 우리를 모해하는 넉두리뿐이다. 때문에 이것을 놓고 가타부타하며 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하지만 미국이 마치도 우리의 불성실한 태도때문에 대화가 파탄된것처럼 사태의 책임을 모두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며 여론화하고있는 조건에서 그에 대해 까밝히지 않을수 없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의도적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면서 대화의 문을 아예 막아버린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힘의 대결을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려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우리는 전후부터 지금까지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여러가지 대화제안을 내놓았다.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지난 시기 조미사이에는 접촉과 대화가 적지 않게 있었다.

우리는 모처럼 마련된 대화를 위해 미국이 자극적인 행동을 할 때에도 인내성을 발휘하여왔다.

미국이 해마다 남조선에서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아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달아오를 때에도 우리는 대화를 위해 최대한의 자제력을 가지고 모든것을 참아왔다.

대화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렇게 진지하고 적극적이였다.

하지만 미국의 자세와 립장은 완전히 딴판이였다.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할 때마다 미국은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허황한 날조선전과 적대감을 고취하였다. 국제무대에서 조미대화와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해 떠들면서도 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면서 대화자체를 거부하였다. 그 도수는 나날이 높아져왔다.

지난해에 미국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제도붕괴를 목표로 한것이라는것을 공개하였다. 올해에도 미국은 우리 수뇌부의 《제거》, 《평양점령》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장난소동을 또다시 벌려놓았다. 조미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대화는 생각조차 할수 없게 되였다.

이것은 미국의 전쟁연습소동이 계속되는 속에서는 조미사이에 그 어떤 대화도 진행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대화를 운운하며 우리를 시비하는것은 대화파괴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술책에 불과한것이다.

대화의 문을 막아버린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다.

올해에 들어와 우리는 어떻게 하나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범하고 신축성있는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였다. 미국이 바란다면 마주앉아 진지하게 토의할수 있다는 립장도 보여주었다.

미국은 이것을 외면하고 도전적으로 나왔다. 우리의 정당한 제안에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강행으로 대답해나섰다. 우리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전쟁연습을 중지할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그것이 《방어적》이고 《년례적》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으며 그만둘수 없다고 강변하여나섰다. 미국의 주장은 그야말로 생억지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는 남조선과 일본, 미국본토, 태평양지역에 있는 미군의 대병력과 숱한 핵타격수단들이 참가한다. 연습내용도 우리를 륙지와 해상, 공중으로부터 선제타격하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를 노린 예비전쟁, 핵시험전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임의의 시각에 실전으로 넘어갈수 있다. 미국의 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긴장되고 말그대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였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전쟁연습이 미당국자들이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전체주의》요 뭐요 하면서 걸고들고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킬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속에서 감행되고있는것이다.

사실 대화를 하자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대화를 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을 해야 한다.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우리와 미국은 적대관계, 교전관계에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미국이 우리의 제도를 붕괴시킬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상대방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여 조미관계를 고의적으로 악화시키면서 대화를 운운하는것은 파렴치한짓이다.

자기를 먹겠다고 칼을 물고 달려드는 원쑤와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그것은 시간랑비일뿐이다. 무지막지하고 분별없이 날뛰는 미국때문에 대화의 길은 아예 막혀버리고말았다.

미국은 조미대화만 파괴한것이 아니라 고약하게도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대화마저도 가로막고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말로는 북남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것을 바라고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와 배치되게 행동하였다.

북남사이의 대화의 기운이 높아질때마다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았으며 남조선당국을 대결에로 부추겨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해에도 미국은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이 진행되는 시각에 조선서해상공에 《B-52》핵전략폭격기편대를 들이밀어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도발적인 폭격연습을 강행하고 련이어 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대화분위기를 흐려놓았다. 력대적으로 미국은 그렇게 하여왔다.

미국의 책동으로 북남관계는 악화의 길로만 걸어왔고 전체 조선민족이 그토록 바라는 조국통일은 아직도 이룩되지 못하고있다.

미국에는 대화라는 말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은 대화가 아니라 대결을 바라고있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책동의 도수를 계단식으로 높이면서 조선반도를 대결마당으로 만들려 하고있다. 미국의 책동으로 조선반도에는 대화의 분위기가 아니라 항시적인 전쟁의 검은구름이 떠돌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위험에 처하여있다.

미국이 노리는 최종목적은 대화의 간판을 들고 껄렁껄렁 시간보내기를 하다가 기회를 보아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자는것이다.

모든것은 명백하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바로 조선반도정세를 악화시키고 대화를 파괴하였으며 이곳을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만들었다.

집권자까지 나서서 우리의 제도를 붕괴시킬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있는 판에 미국이 《진정성》있는 대화를 모색한다느니,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있다느니 뭐니 하는것은 미국식파렴치성의 극치이며 유치하고 치졸한 말장난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우리 인민과 공정한 국제사회를 우롱하며 모독하고있다.

아무리 갖은 요술을 다 부려도 미국은 대화파괴자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감출수 없다.

리 학 남

ㄱ-51039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